

시민의 힘, 대구를 바꿉니다!
함께 꾸는 꿈, 현실이 됩니다!

2023년 대구참여연대 제25차 정기총회

2023년 2월 23일(목) 19:00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상상홀



총회 순서

개회선언

서기지명

전차 총회 의사록 확인

제1호 안건: 2022 사업보고 승인의 건

제2호 안건: 2022 결산보고 승인의 건

제3호 안건: 2022 감사보고의 건

제4호 안건: 2023 임원 선출의 건

제5호 안건: 2023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

제6호 안건: 2023 예산안 승인의 건

제7호 안건: 회원규범 채택의 건

기타 안건

서기록 확인 및 폐회 선언

2022 회원상 시상

2022 감사패 수여

임원 및 활동가 인사

자료집 목차

창립선언문	-----	5
전차총회 회의록	-----	7
사진으로 보는 2022 활동	-----	15
2023 회원의견조사 결과	-----	37
2022 활동보고 및 평가		
○ 총괄평가 및 과제	-----	53
○ 조직보고 및 평가	-----	55
○ 사업보고 및 평가	-----	60
○ 결산보고 및 평가	-----	71
2022 감사보고	-----	77
2023 임원 선출안	-----	81
2023 사업계획안	-----	85
2023 예산안	-----	97
부록		
○ 2022 언론보도 목록	-----	103
○ 정 관	-----	114
○ 대구참여연대가	-----	120

창립선언문

“시민의 힘으로 대구를 바꿉시다”

21세기를 목전에 둔 지금, 한국사회를 지탱해온 권위주의적 정치와 성장주의적 경제라는 두 축은 세계사적 변화 속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세계사적 변화를 올바르게 수용하고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기에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적 토대와 시민사회는 아직도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 또한 권위주의와 지역주의, 시민의식의 보수성과 폐쇄성 등으로 인해 시민사회의 발전과 참된 지방자치의 실현을 통한 참여민주사회의 건설이라는 과제가 뒷전으로 밀려 있고, 시민의 지혜와 참여를 기반으로 문제해결의 가교역할을 담당해야 할 시민운동은 현실의 힘에 밀려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고민과 토론을 거쳐, 21세기를 향하여 새로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시민 스스로가 사회의 참된 주인으로 자리를 찾고, 참여와 자치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의 발전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이루는 것이 선결과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시민의 소중한 지혜와 참여를 통한 풀뿌리민주주의 정착과 지역사회 발전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 안이한 밀실을 떨치고 나와 참여의 광장에서 구체적 실천을 이루어가는 것은 이 시대가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위의 과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실천할 튼튼하고 열린 공론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느끼고 새로운 도전의 도구로서 대구참여연대를 창립합니다.

대구참여연대는 참여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희망의 공동체를 일구고자 합니다. 참여민주주의는 스스로 삶의 공간을 개혁함으로써 풍요롭고도 정의로운 미래사회를 만들

시민의 힘으로 대구를 바꿉시다!

어 가는 시민운동의 기본정신으로서 시민의 참여와 자치, 협동의 정신 위에 세워지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주민참여의 극대화와 투명한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열린 자치공간을 확보하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면서 질적으로 보다 향상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정의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시민들과 함께 대구사회의 개혁의 청사진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행동이 함께 어우러지는 넓고 큰 참여의 마당과 틀이 절실합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시민, 참여하고 행동하는 시민, 잃어버린 권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지역사회에서 희망을 만들어 나가는 대구참여연대 창립을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이제 시민의 힘으로 대구를 바꾸는 그 희망찬 길에 우리 함께 합시다.

1998년 4월 11일

대구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2022년 제24차 정기총회 회의록

2022년 제24차 정기총회 회의록

- 일시: 2022년 2월 24일(목) 오후 7시

- 장소
 - 대면 : 대구 YMCA 청소년회관 4층(백심홀) 현장 참석 : 24명
 - 비대면 : 유튜브 온라인 중계
 - 온라인 회원투표: 구글독스 회원투표, 2.21~ 24일, 참가자 54명

- 서기 : 이범정 회원

- 안건
 - 제 1호 안건 : 2021년 사업보고 승인의 건
 - 제 2호 안건 : 2021년 결산보고 승인의 건
 - 제 3호 안건 : 2021년 감사보고의 건
 - 제 4호 안건 : 2022년 임원 선출의 건
 - 제 5호 안건 : 2022년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
 - 제 6호 안건 : 2022년 예산안 승인의 건
 - 제 7호 안건 : 정관개정의 건
 - 기타 안건

- 서기록

[개회] 19:05

강금수 사무처장의 사회로 총회를 시작하다

[의장선출]

강금수 사무처장이 정기총회 의장으로 엄창옥 공동대표를 추천하다
회원들의 동의로 엄창옥 공동대표가 의장으로 선출되다

[개회선언]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다.

시민의 힘으로 대구를 바꿉시다!

[서기임명]

의장이 서기로 이범정 회원을 임명 추천하다
회원들의 동의로 이범정 회원을 서기로 임명하다.

[전차 총회의사록 확인]

의장이 2021년 총회의 총회의사록 확인을 요청하다. 의장이 회원들에게 43페이지에 있는 전차총회의사록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지 물어보다. 회원들의 이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다

[안전심사]

제 1호 안전 : 2021년 사업보고 승인의 건

의장이 안전을 상정하다
의장이 사무처장에게 사업보고를 요청하다
강금수 사업보고 영상을 상영하고, 구두로 총괄 요약보고를 하다
의장이 회원들에게 질의 및 토론 의사를 묻다
의장이 회원들의 질의 및 토론 의견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다
의장이 안전의 승인을 회원들에게 요청하다
회원들의 동의 및 제청으로 의결되다
제2호 안전 : 2021년 결산보고 승인의 건

의장이 안전을 상정하다
의장이 사무처장에게 결산보고를 요청하다
사무처장이 안전을 설명하다
의장이 회원들에게 질의 및 토론 의사를 묻다
의장이 회원들의 질의 및 토론 의견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다
의장이 안전의 승인을 회원들에게 요청하다
회원들의 동의 및 제청으로 의결되다

제3호 안전 : 2021년 감사보고의 건

의장이 안전을 상정하다
의장이 감사보고를 류영준 운영위원에게 대행하도록 요청하다
류영준 운영위원 사업감사보고와 회계감사보고를 대독하다
의장이 감사보고를 받았음을 확인하다

제4호 안건 : 2022년 임원 선출의 건

의장이 안건을 상정하다

의장이 안건의 제안설명을 박종률 부운영위원장에게 요청하다

박종률 부운영위원장이 임원추천안을 제안설명하다

의장이 회원들에게 질의 및 토론 의사를 묻다

의장이 회원들의 질의 및 토론 의견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다

의장이 안건의 승인을 회원들에게 요청하다

회원들의 동의 및 제청으로 의결되다

의장이 새로이 선출된 박호석 이두옥 자문위원에게 인사말을 요청하고 두 자문위원이 인사하다

의장이 새로 선출된 박경로 대표와 류영준 운영위원장에게 인사말을 요청하고 두 분이 인사하다

제5호 안건 : 2022년 사업계획의 승인의 건

의장이 안건을 상정하다

의장이 안건의 제안설명을 사무처장에게 요청하다

사무처장이 사업계획을 제안 설명하다

의장이 회원들에게 질의 및 토론 의사가 있는 지 묻다

유튜브에서 우웅택 회원이 청년 모임 연대, 시민 전파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있는지 질문하다

의장이 사무처장에게 답변을 요청하다

사무처장이 “과도한 목표는 어려우므로 규모에 구애받지 않고, 시의 청년정책에 참여하거나 주민참여예산제 활동에 참여하는 것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시민전파는 예산적 제약 때문에 광고는 어렵지만, 마을방송국 등과 연계해서 활동을 소개하고 전파하는 코너를 운영하는 등의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명하다

의장이 “청년재단 설립을 위한 청년 협력단을 운영하고, 청년재단은 어떻게 설립되어야 하는지 등 대구의 청년재단을 계획하는 내부적 구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의장이 안건의 승인을 회원들에게 요청하다

회원들의 동의 및 제청으로 안건이 의결되다

제6호 안건 : 2022년 예산안 승인의 건

시민의 힘으로 대구를 바꿉시다!

의장이 안건을 상정하다
의장이 안건의 제안설명을 사무처장에게 요청하다
사무처장이 예산안을 제안 설명하다
의장이 회원들에게 질의 및 토론 의사를 묻다
의장이 회원들의 질의 및 토론 의견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다
의장이 안건의 승인을 회원들에게 요청하다
회원들의 동의 및 제청으로 안건이 의결되다

제7호 안건 : 정관개정의 건

의장이 안건을 상정하다
의장이 “운영위원회의 정관개정안은 없다”고 설명하고, 회원들에게 정관개정에 대한 의견이 있는지 묻다
의장이 회원들로부터 정관개정에 관한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다

기타안건

의장이 기타 안건으로 상정할 것이 있는지 회원들에게 묻다
의장이 회원들로부터 기타안건이 없음을 확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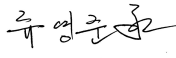
[서기록 확인 및 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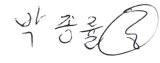

의장이 회원들에게 회의록 확인은 운영위원회에 위임하도록 요청하다
회원들이 이에 동의하다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다(2022년 2월 24일 오후 8:40)

2022.2.24.

위 회의록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 3. 16

대구참여연대 제13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영준 

부위원장 박종률  정희선 

운영위원 양희  김채원 

김형진  박근식 

박정민  이승연 

하만호  한경국 

사진으로 보는 2022년 활동

대선 관련 활동

[정책제안]

20대 대통령 선거 대구변화 3대 비전 14개 의제

- 대구 변화 3대 비전, 14개 의제, 42개 정책과제
- 비전 I. '돌봄도시 대구' 5개 의제, 15개 정책과제
- 비전 II. '청년도시 대구' 5개 의제, 15개 정책과제
- 비전 III. '자치도시 대구' 4개 의제, 12개 정책과제

대구참여연대

[새로운 공공병원 설립 대구시민행동]

[성명]

대선 후보는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을 약속하라

- 오늘, 코로나 1차 대유행 2년, 지하철 참사 19주년, 시민 안전·생명 정책 요구 커
- 후보들, 공공의료 국가책임 강조 그러나 심상정 후보만 '제2 대구의료원 설립' 공약
- 대구에 가장 시급한 공약, 대선후보들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시민들에게 약속해야

20대 대선 정책의제

자치분권 의제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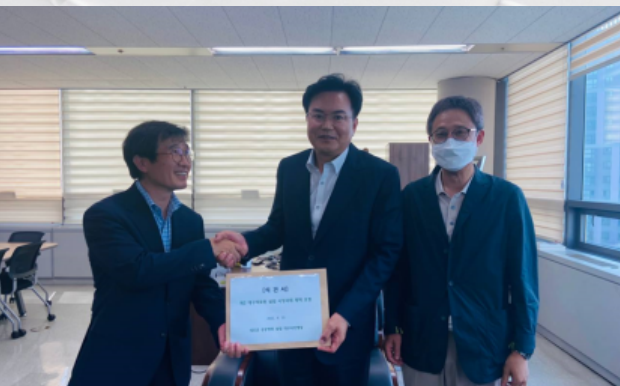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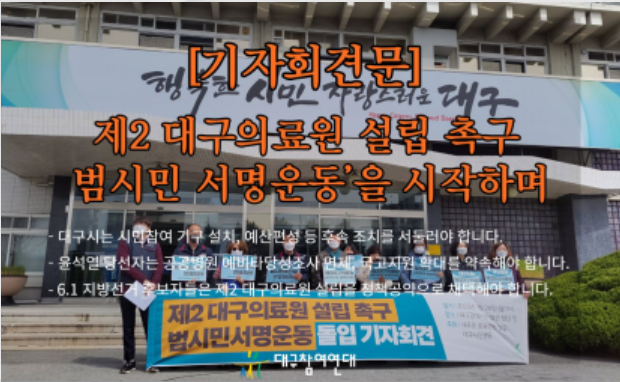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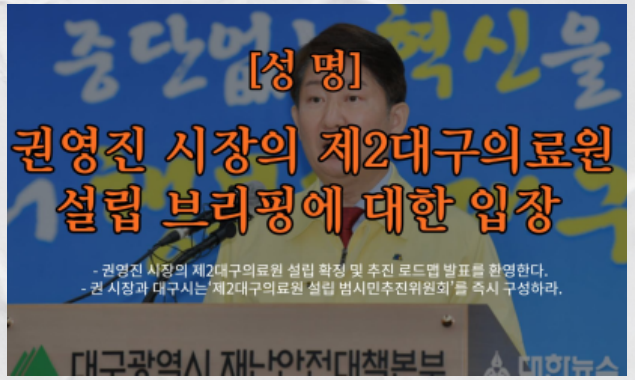
참여자치연대

[성명]

당선자와 여야 정치권에 바란다

대구참여연대

제2 대구의료원 관련 활동



제2 대구의료원 관련 활동2

| 새로운공공병원설립 대구시민행동 워크샵2 |

공공병원 건립운동의 현황과 의미

정형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공공의료

일시 : 2022년 3월 16일 수요일 저녁 7시 부터
 장소 : 대구 YMCA100주년기념관 4층 백심홀
 문의 : 새로운공공병원설립 대구시민행동 사무국
 (053-425-7029, dghumandocor@gmail.com)



6.1 지방선거, 모든 후보는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을 약속해야 합니다.

대구시민 여러분, 2020년 2월 대구 코로나19 대응할 때 병원 문턱도 못 넘고 돌아간 시민, 타 지역의 병원을 찾아 떠돌다 제때 치료받지 못한 시민이 많았습니다. 이런 일을 다시 겪을 수는 없습니다. 인구 243만 도시에 공공병원다운 병원이 대구의료원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공병원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루
 지금이 공공의료 확충의 마지막 골든타임
 누가 대구시장이 되더라도 제2 대구의료원은 반드시 설립되어야 합니다.**

▶ 참여하기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촉구 범시민서명운동 - 서명 참여 링크 : <https://daegu.hospitalweb.me/> - 서명 참여 QR코드

새로운공공병원설립 대구시민행동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촉구 언론광고 참여자 모집

광고예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루 공공병원
 지금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
누가 대구시장이 되더라도 제2 대구의료원은 반드시 설립되어야 합니다

강남, 광명, 구미, 김포, 민포, 백담, 서도
 이도, 성미, 청미, 장미, 조미, 한미, 홀미.....

모집내용

참여자 : 대구시민 누구나
 참여비 : 1만원 이상
 참가기간 : 2022.05.06 (금) 까지
 참여신청 : 첨부링크
 문의 : 새로운공공병원설립 대구시민행동 사무국
 053-427-9780
 053-425-7029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촉구 대시민 서명운동

- 서명 홈페이지 주소 바로가기
- 대구시민의 목소리를 대구시에 전달
- 서명 기간 : 4월, 5월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인정을 위해!

**공공의료 확충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지금이 골든 타임!**

새로운공공병원설립 대구시민행동

제2 대구의료원 관련 활동3

제2 대구의료원 대구시 정책토론행구 서명하기

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성별	서명/날인	일자
비워두기	홍길동	92xxxx	지번 또는 호수 까지	여/남	홍길동 <small>(인사과 직인 부착)</small>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은 시민과 약속입니다!
홍준표 시장이 독단으로 중단할 사안이 아닙니다!
시민 공론화, 사회적 합의로 결정해야 됩니다!

- ➔ 서명인 : 만 19세 이상 대구시민
- ➔ 서명기간 : 2022.10.12 ~ 11.11
- ➔ 서명방법 : 첨부파일 다운 후 서명
- ➔ 문의전화 : 053-427-9780 / 053-425-7029

새로운공공병원설립 대구시민행동

대구광역시 주최

제2대구의료원 설립 관련 정책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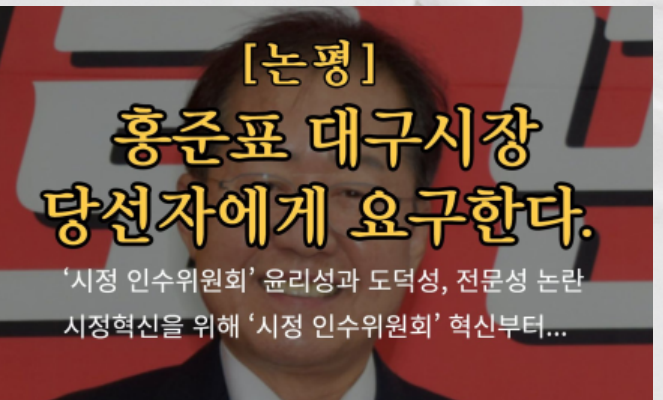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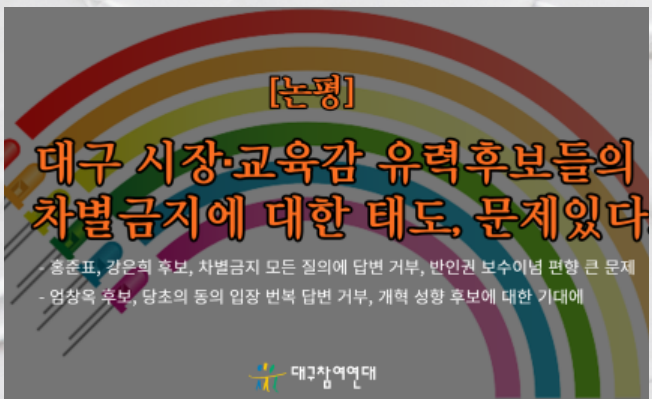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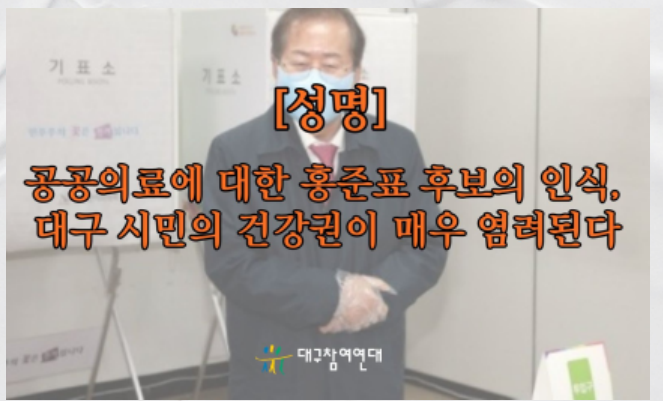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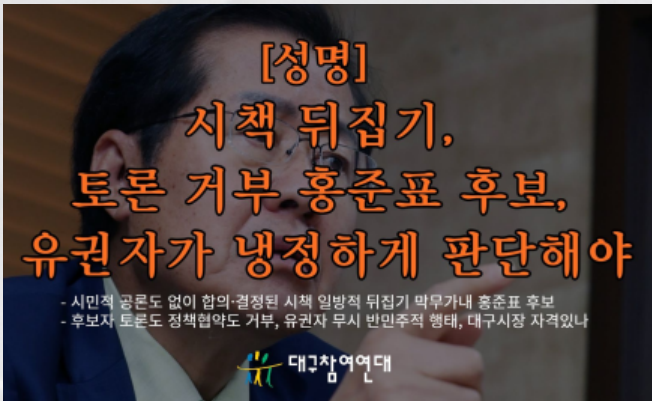
2023년 2월 14일 (화) 15:30 부터
대구문화예술회관 팔공홀,
(뉴스민Youtube 채널 생중계 예정)

발제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 연합회장 서창민 대구의료원 기획조정실장
좌장	김건엽 경북대병원 공공보건의료본부장
토론	이정현 새로운공공병원설립 대구시민행동 공동대표 김종연 대구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이상원 뉴스민 기자 김진영 대구광역시 공공의료팀장

문의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정책관 (053-603-6362)
새로운 공공병원설립 대구시민행동 (053-427-9780)



지방선거 관련 활동



정치개혁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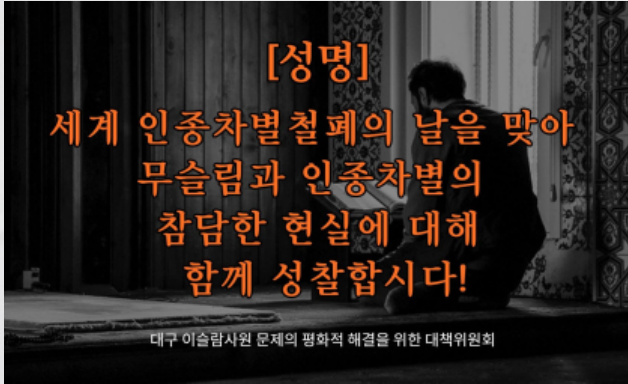
[논평]
민주당,
정치개혁 약속 실천에 옮겨야

대구참여연대



국회는 정치개혁 실천과 입법으로 응답하라!
일시 | 2022년 4월 4일 (월) 오후 1시 30분 장소 | 국회 헌정광장 계단

이슬람사원 관련 활동



[논평-홍시장님, 이래도 됩니까(5)]

**무슬림 학생 차별 방치하고,
 국제 대학생행사 과시, 문제있다.**

- 대구시, 현안 해결은 못하면서 대학생국제교류 행사 성과 과시는 모순
- 경북대 무슬림 학생 차별 방치하면 파워풀대구의 국제적 위상 못 갖춰
- 홍 시장, 대현동 이슬람사원 문제 해결하는 성숙한 리더십 보여야

대구참여연대

[성명]

**이슬람 사원 문제, 홍준표 시장의
 전향적 노력을 촉구한다.**

- 이슬람 사원 문제, 헌법 정신을 담은 홍 시장의 발언에 주목
- 말을 넘어, 문제해결의 의지와 진심을 담아 진일보한 노력 촉구
- '사회적 협의체' 구성하여, 지혜를 모으고 방안을 찾아야 할 것

대구참여연대



시정감시 활동



[성명]
**대구시설공단
 주민참여예산 부당개입,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

- 주민참여예산제도 부당개입으로 3년간 34억2천9백만원 부당편성 확인
- 시설공단은 즉시 사과하고, 감사원의 주의 조치 이행 등 개선 조치해야
- 대구시도 관련 조례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감독하고, 행정지도 엄격히 해야

대구참여연대

[성명]
**연합뉴스 절독 등
 홍준표 시장의
 독단, 권위주의 행정 비판**

- 연합뉴스 절독, 시청 앞 집회 제한, 자치경찰위원회 경찰 출신 내정 등
- 결정 전에 공직사회와 시민사회 의견 수렴, 소통·공론화과정 거쳐야

대구참여연대

[논평]
**대구시 행정개혁 줄속 추진 비판,
 대구시의회 '행정개혁특위' 구성 촉구**

-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주일 사이에 2번이나 재입법 예고, 이례적
- 조직개편과 한시기구 설치, 업무조정 등 줄속 추진에 따른 문제
- 공공기관, 위원회, 각종 기금 통합 등에서도 되풀이 되면 안돼
- 대구시의회, 대구시 행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하여 제대로 점검해야

대구참여연대

[성명]
**시민참여 위원회는 폐지,
 흥 시장 정치자문기구는 신설,
 문제있다.**

- 전환경급식위, 시민전략회의, 남북협력기금, 양성평등기금 등 시민참여 제도와 정책 예산은 폐지
- 반면, 역할이 불분명하고 흥 시장 정치자문기구로 보이는 '시장상임고문운영조례' 제정 추진
- 시민참여와 거버넌스에 역행하는 시장개혁 문제 많아, 시의회 '행정개혁특위' 구성해야

대구참여연대

[성명]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에
 동조하는 홍준표 시장 비판**

- 17개 광역단체장 중 유일하게 홍준표 시장만 찬성
- 윤석열정부에 동조하여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외면하나
- 반대입장 분명히 하고, 대구시 자구 대책 마련해야

대구참여연대

[성명]
**2023 대구시 예산안에 4개 분야
 26개 정책예산 반영 촉구**

- 빛 값는다고 시민복지와 공공서비스 예산 삭감 안 되고, 무분별한 투목·개발 예산편성도 안돼
- 3고 경제난, 신종 감염병 및 재난에 대비하는 민생경제, 돌봄복지, 시민안전 예산 확충하고
- 지방자치시대 좋은도시는 시민사회가 건강해야, 주민자치와 시민사회 활성화 예산도 확대해야

대구참여연대

[보도자료]
**대구시 노동 예산 = 한국노동 예산,
 오명 벗어야**

- 민간이전 노동예산 14개 사업 중 11개(78%), 16억7천여만원(60%), 한국노동(및 경총) 독식
- 일자리노동정책관 한국노동 출신 임명에 이어 노동자권익센터 위탁도 한국노동 예산
- 노동자권익센터까지 한국노동 위탁 재고, 보수 일색, 특정 단체 편향 노동시책 벗어나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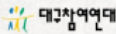
대구참여연대

시정감시 활동2

[성명]

대구교통공사는 일방적 민영화구조조정 중단하라!

- 3호선 운행관리원 용역 전환은 승객 안전의 유일한 수단을 민간에게 넘기는 것
- 채무감축 빌미로 책임을 시민, 정부에 떠넘기면서도 적자 키우는 노선 증설도 문제
- 일방적 민영화-구조조정 중단하고, 노동조합 등 구성원과 시민사회 의견 수렴해야



[성명]

홍 시장의 '하명 감사' 기관으로 전락한 대구시 감사위원회 비판

- 감사위원회, 홍 시장의 의도에 쫓겨 맞춘 감사, 독립성 잃고 정치 도구 자초
- 청렴성 제고가 아닌 재정 감축에 초점을 맞춘 감사, 감사기관의 역할도 벗어나
- 감사위원회는 위상 재정립하고, 시의회는 감사위원회의 감사행정도 감사해야



홍준표 시민감시단
모집합니다

대구시장과 시의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살펴볼 결심!

- 모집기간 2022.10.31까지 (주후 2차 추가모집)
- 활동기간 2022.10.5. ~ 12.30.
- 모집대상 대구참여연대회원 및 대구시민 누구나 (*취지에 동의하는 사람)
- 활동배택 자원봉사센터 활동확인서 제공 가능
- 모집인원 1차 30명(선착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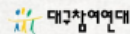
☑ 참가신청 -전화: 053-427-9780(대구참여연대사무실)
-온라인접수: 구글폼 신청 (링크 별도 안내)

대구참여연대

[성명]

홍준표 시장, 어디서 뭘 하나? 시장 업무 기록 없다니 기가 막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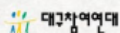
- 대구시, 버젓이 있는 고위공무원 업무활동 정보 비공개
- 홍 시장, 시민참여 기구 폐지, 1인시위 등 제한에 이어 알권리도 차단
- 시민 목소리 듣지 않고 집무실에서 뭘 하고 있나, 시민 물음에 답하라



[논평- 홍준표 시장 모니터]

홍준표 시장님, 이래도 됩니까(1) - 품격 없는 대구시 유튜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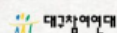
- 시민 조통하는 문구로 유튜브 영상 업로드, 홍 시장 개인 채널과 흡사
- 홍 시장 본인이 비판적 언론, 시민사회 존중하지 않고 적대하니 생기는 문제
- 기자 출신 뉴미디어 담당관, 공공기관 공식 채널의 품격과 책임 성찰해야



[논평 - 홍준표 시장 모니터]

홍준표 시장님, 이래도 됩니까(2) - 7개 특광역시장 공무 일정 비교

- 홍 시장, 공무수행 일정 수 7명 중 6위, 아무 일정 없는 날 수는 공동 7위
- 주말 일정 5개월간 8회로 가장 적어, 바빠 움직이는 모습 안 보여
- 민생경제 파탄 지경, '대구 미래 50년 먹거리' 하늘에서 떨어지나




시정감시 활동3

[논평-홍준표 시장 모니터]

홍 시장님, 이래도 됩니까(3) 7대 특광역시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비교


- 홍 시장, 업무추진비 적게 쓴 반면 적게 일했다고 볼 수 있어
- 단순 직원격려에 거의 80% 쓴 반면 시책추진 정책 활동, 기관협력 외부 활동은 적어
- 연말에 선심성 집행도 문제, 직원복지는 다른 예산으로, 업무비는 업무비답게 써야

 대구참여연대

[성명]

홍 시장님, 이래도 됩니까(4) - 의회와 법치 무시하는 홍 시장


- 의회의 설립 의결도 안 됐는데 대구정책연구원 원장 공모, 문제 있어
- 홍 시장, 이런 행위 여러 번, 의회와 법치 위에 있다, 오만해
- 시의회, 홍 시장 책임 묻고, 의회 위상과 법치행정 제대로 세워야

 대구참여연대

[성명-홍 시장님, 이래도 됩니까(5)]

홍 시장, 대형마트 휴무일 평일 변경과 노동자 탄압, 멈추라


- '있는 자' 위한 규제 완화로 '없는 자' 희생시키는 홍준표식 '나쁜' 전국 최초
- 대형마트 노동자야말로 협약의 당사자, 당사자 뺀 협약은 무효
- 반대하는 노동자 집단 고발은 시민의 압도적 다수와 격대하고 싸우자는 것
- 홍 시장, 일방적 추진 멈추고, 구청장-교수는 설부터 부화뇌동 말아야

 대구참여연대

[성명]

도시브랜드를 시장 마음대로, 안 돼! 시민의견 수렴 조례 제정해야

- 7대 특광역시 중 대구시만 '상징물관리조례' 없이 시장 마음대로 결정
- 여론조사, 공청회 개최 등 시민의견 수렴 절차 조례로 제도화해야

 대구참여연대

[성명]

홍준표 시장, 대중교통 무임승차 만 70세로 상향, 중단하라!


- 물가인상, 실질소득 감소 등 민생고 아랑곳없는 복지 축소, 안될 말
- 절차적으로도 상위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위법 소지도 있어
- '홍준표 발 나쁜 전국 최초' 더 이상 안 돼, 즉각 철회해야

 대구참여연대

[보도자료]

대구참여연대와 정의당대구시당, 홍준표 시장 검찰에 고발

- 대형마트 휴무일 평일 전환, 기5초단체장 권한 침해하고 이해당사자 배제
- 직권남용 강요, 권리행사방해 및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등 엄정 수사 촉구

 대구참여연대

 정의당대구시당

의정감시 활동

[성명]

대구시의회 31년 만에 '의장 선거'... 방식 진일보했으나 문제점 여전

- 31년만에 의장선거 변화는 환영
- 후보자 동시등록 및 토론시간 부재는 부적절
- 후반기 의장단 선출 때는 제도 다듬고 보완해야

[성명]

대구 서구의회와 중구의회는 세금낭비 관광성 의원연수 당장 취소하라

- 임기말, 재선의원과 낙선의원 의원연수 부적절
- 연수일정 역시 관광성 연수로 판단될 여지 높아
- 서구의회와 중구의회는 계획취소, 수성구의회는 경비세부 내용 등 정보공개 필요

대구참여연대

[공동성명]

9대 시의회, 의회혁신 7대 정책을 제안한다.

- 의장단 선거 방식 변화 의미, 그러나 혁신과제 더 많아
- 윤리 확립, 시민참여, 입법-정책 기능 강화 등 의회부터 혁신해야
- 7대 정책 검토, 제도와 예산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촉구

[성명]

공공기관 통폐합 조례개정 전면 중단하고 '공공기관개혁특위'부터 구성하라.

- 테크노파크조례 개정안, 법령에 어긋나고, 관련 부처와 협의도 없어
- 조례개정 강행 시 막대한 사업·예산증발, 직원 일자리와 업체 타격 우려
- 조례 개정 전면 중단, '공공기관개혁특위'부터 구성해야
- 강행한 결과 초래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

대구참여연대

[정책토론회]

8대 시장·9대 의회의 시·의정 혁신 방향과 정책과제

사회 : 이소영(대구참여연대 좋은정책네트워크 지방자치정책위원장)

Part1 흥준표 시장의 시장개혁 정책과제 평가와 제안

경제산업분야	안현효(대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사회복지분야	김보영(대구참여연대 좋은정책네트워크 소장)
보건의료분야	이정현(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의회의 대표)
노동정책분야	이원준(대구참여연대 좋은정책네트워크 부위원장)
생태환경분야	정수근(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시민사회분야	강금수(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Part2 9대 대구시의회 의회혁신-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토론	허세현(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임인환(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백경록(대구의회정참여센터 운영위원장) 장지혁(대구참여연대 상생위원)
----	--

Part3 자유 토론 (30분)

2022. 8.31(수) 오후3시

대구광역시의회 회의실

주최

대구참여연대 좋은정책네트워크/
대구의회참여센터/대구경북모아뉴스

[성명]

보류 안건 재심사, 거수기 자처하는 대구시의회, 개탄한다.

- 대구시의회, 각종 기금 폐지안과 시장특별고문조례 등 보류한 안건 돌연 재심사
- 흥 시장의 시장 개혁 견제하지 않고, 거수기 역할 자처하는 대구시의회 개탄
- 재심사 중단, '행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 시의회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해야

대구참여연대

[성명]

대구시의회, 조례개정 중단하고 '공공기관 개혁 특위' 구성하라

- 시의회, 흥준표 시장의 철저 정당화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돼
- 기관별 진단과 평가, 공청회 등 의견수렴, 민주적 과정 거쳐야
- '공공기관 개혁 특별위원회' 구성하여, 합리적 개혁방안 수립해야

대구참여연대

의정감시 활동 2

대구광역시의회 제29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20개 감사요구안

2022. 11. 3 대구참여연대

- ①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중단에 대한 문제 제기 및 공공의료 확충 방안
- ② 대구시 생활임금제 도입 நட장 추진의 문제와 대안
- ③ 지역화폐(대구행복페이)와 공공배달앱(대구로) 축소 문제와 대안
- ④ 대구-광주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풀속 추진 문제와 대안
- ⑤ 낙동강 녹조 및 독살물질 정출, 대구시 행정의 문제와 해결 방안
- ⑥ 해병파수원 공동이용 합의 무산 문제와 안동·일화댐 이용의 타당성 문제
- ⑦ 대구시의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문제와 개선 방안
- ⑧ 대구시의 각종 기금 통폐합에 따른 문제와 개선 방안
- ⑨ 대구시의 각종 위원회 통폐합에 따른 문제와 개선 방안
- ⑩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문제, 대구시 행정의 문제와 해결 방안
- ⑪ 대구시 청사 앞 1인시위, 기자회견 등 제한 문제와 개선 방안
- ⑫ 대구시 노동관련 예산 특정단체 편중 지원 실태와 개선 방안
- ⑬ 대형마트 휴일제 폐지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 ⑭ 도시철도 3호선 운행리원 민간위탁의 문제와 시민안전 정책 대안
- ⑮ 한국재산연구원 폐원 위기의 책임과 대안
- ⑯ 다이텍연구원의 유해마스크 공급 문제의 책임과 예산 환수
- ⑰ 대구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기여도 부실의 원인과 대안
- 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공무원 개별 실태와 개선 방안
- ㉑ 대구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의 예산 미전상 문제와 개선 방안
- ㉒ 대구시의 의회 무시·입법권 무력화 사례와 개선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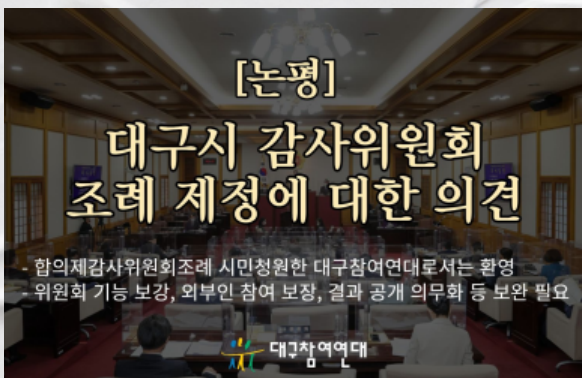


[성명]

대구시의회만 의원의 검직 보수 정보 비공개, 알권리 침해

- 8개 기초의회는 공개, 대구시의회만 유일하게 비공개, 유감
-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개인정보라도 공공성이 크면 공개해야
- 이의신청 불수용 시 행정소송 등 시민의 알권리 찾을 것

대구참여연대



- 합의를 감사위원회조례 시민청원한 대구참여연대로서는 환영
- 위원회 기능 보장, 외부인 참여 보장, 결과 공개 의무화 등 보완 필요

대구참여연대

[성명]

대구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부실심사 졸속처리 우려 '대구시 행정개혁특별위원회'구성 제대로 점검하라.

- 11일 만에 조례 폐지안, 결산 및 추경 등 중대 의안 55건 처리, 부실 심사 우려
- 남북협력, 양성평등 등의 기금 및 친환경급식위, 시민주간시민추진위 등의 위원회 폐지안 졸라와
- 대구시의회, 졸속처리 말고 '행정개혁특별위원회' 구성하여 제대로 살피고 합리적 대안 마련해야

대구참여연대

[보도자료]

중구의회 배태숙 의원 등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감사청구

- 배 의원, 유영회사 내세워 다수의 수의계약 의혹, 지방계약법 등 위반
- 담당 공무원, 관련 사실 알고도 묵인, 이해충돌방지법 등 위반
- 배 의원과 공무원은 진실 밝히고, 감사원은 엄중하게 책임 물어야
- 중구청과 중구의회 역시 즉시 진상조사하고 시태 방호반 책임져야

대구참여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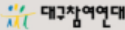
[성명]

비위 의원 의정비 지급 중단, 조례 제개정 등 제도개혁 촉구


- 지방의원이 구속되어도 월급은 꼬박꼬박, 더 이상 안 돼!
- 대구시의회 전태선 의원, 정치적 책임 있다면 자진 반납해야
- 대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즉시 개최, 징계해야
- 국민권익위 권고대로 구속 시 의정비 지급 중단 등 조례 제·개정해야

대구참여연대

정책포럼



2022년 제1차 대구참여연대 민주시민포럼




6.1.지방선거, 대구변화를 위한 정책의제

일시	2022년 4월 28 (목) 19:00
장소	공간 7549 (사무실 지하강당)

주최 : 대구참여연대 좋은정책네트워크

정책제안

- 진행** 김우진(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돌봄** 김보영_영남대 휴먼서비스학과 교수
- 자치** 김영숙_대구시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장
- 청년** 엄창욱_경북대 경제학과 교수
- 노동** 정은경_대구노동정상 대표
- 교육** 임성무_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장
- 안전** 김중진_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 질의응답**



문의처 | 대구참여연대 (053-427-9780)

2022 대구참여연대 확대 임원 정책포럼

+ 윤석열정부, 흥준표시장 시민운동의 방향과 과제

-참여연대 운동방향과 과제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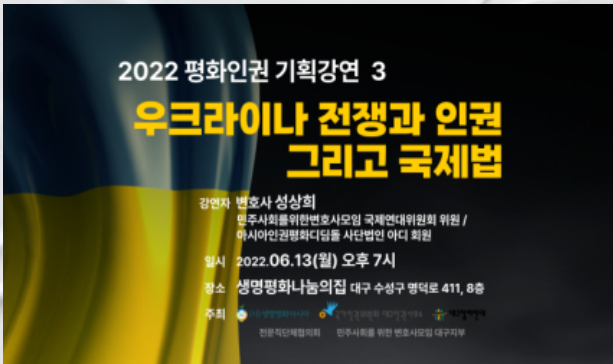
일시	2022년 7월 14일 (목) 19:00
장소	공간 7549 (사무실지하강당)
진행	김보영_대구참여연대 좋은정책네트워크스장 영남대 휴먼서비스학과교수

- ◆
주제발표1 윤석열정부와 한국 시민운동의 방향과 과제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지원팀정책지원차장]
- ◆
주제발표2 흥준표 시장과 대구 시민운동의 방향과 과제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 ◆
지정토론
 이소영 [좋은정책네트워크 자민자치성책위원회 위원장 (K22대 국제경제학과 교수)]
 이원준 [좋은정책네트워크 사회보조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
자유토론





기타 활동



기타 활동2

[성명]

자치경찰시대 역행하는 행안부의 경찰 통제 중단하라

경찰 권한 분산 · 민주적 통제 대신 '경찰국' 부활은 시대역행
자치경찰제와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경찰개혁 방안 전면 재논의해야

대통령의 시민사회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문제다

참여자치지역운동대

2022. 민주시민교육

대구참여연대 X 모D

헌법과 지방자치권 지대로 배우보자!

김해원(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과 함께하는
지방자치를 위한 권력, 제도, 심성

1강 11. 28(월) 지방자치의 출발점 : 헌법

2강 12. 5(월) 지방자치의 이념과 현실
: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사법권

3강 12.12(월) 지방자치제도와 선거제도
: 정당공천제도와 지역정당

4강 12.19(월) 전체 토론
: 지방자치의 진정한 주체 - 주민의 역할과 과제

시간 : 오후 6시 30분

장소 : 공간7549 (대구 중구 서성로 14길 59. 지아)

주최: 민주시민교육공동체 모D . 대구참여연대
참가 문의 053-427-9780 // 010-5544-4288

최초 신고 6시34분 막을수 있었다.

국가는 누구를 위해 존재 하는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이태원 참사,
국가 책임이다!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이태원 참사 국가책임이다
대통령이 책임져라!

10.29 이태원참사 대구시민추모행동

현장에서 추모발언을 접수 받습니다
촛불, 깃발, 피켓은 준비 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게 준비해서오셔도 됩니다.

2022. 11.23(수) 오후 6시34분
한일극장 앞



기타 활동 3

**이태원 참사 책임 촉구!
윤석열 정부 실정 규탄!**

시민행동 참여자 모집

모집 1 공동 1인시위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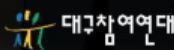
일시: 2022. 11. 17(목) 오전 11시~ 12시
장소: 국민의힘 대구시당사 앞 (수성구 동대구로 382)
모집 기간: 2022. 11. 16(수)까지
시위 방법: 당사 주변 인도 피켓 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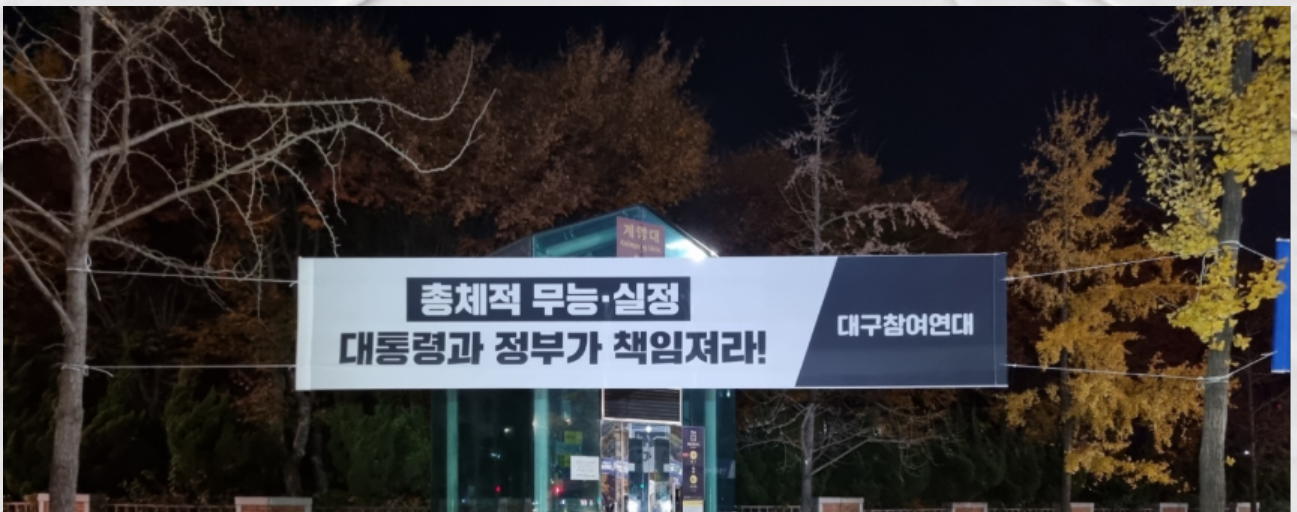
모집 2 현수막 100개 걸기 참여

모집기간: 2022. 11. 16(수)까지
게시일자: 2022. 11. 18(금)부터
참가비: 장당 3만원 (대구은행 504-10-272198-0 / 대구참여연대)
문구선택 (개인 이름은 생략가능)
1> 이태원 참사, 국가는 없었다. 책임자를 처벌하라!(대구참여연대/시민000)
2> 총체적 무능·실정, 대통령과 정부가 책임져라!(대구참여연대/시민000)

참여방법 구글링크

문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 /053-427-9780

 대구참여연대



조직활동

이벤트
안내

24주년 홈커밍데이

대구참여연대 스물네번째 생일을 맞아 홈커밍데이!!
생일주간(4.11~4.21, 단 월요일 제외)
페이스북과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미니북콘서트 이종득&김병호 작은 책 작은 콘서트
날짜: 2022년 4월 20일 (수) 오후 7시
장소: 공간 7549 (대구시 중구 서삼로 12길 59 사무실 지하강당)

온라인 이벤트 대구참여연대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fgppd>

- 대구참여연대 SNS친구맞고, 생일축하 게시물에 좋아요와 댓글달기
→ ex) 생일 축하해요 대구참여연대, 대단히 좋은 일이에요!
- 대구참여연대SNS친구맞고, 생일축하 게시물에 좋아요와 5자 칭찬하기
→ ex)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응원해주시고요, 오늘이 정말
- 개인 SNS에 해시태그 달고 대구참여연대와 함께 한 추억의 사진 올리기
→ ex) 대구참여연대, 24주년 축하, 대구참여연대, 24주년, 홈커밍데이
- 4월11일부터는 136호 소식지에서 '대구참여연대 전원이 나누누리 통산아이디를 찾아라' _ 해당 게시물에 댓글 달아서 재보내기

부담행사

- [사무실 방문의 날] 4.20.(수) 온종일 대구참여연대 사무실 방문시 맥과 디과재용. (축하사신 박!!)
- [차라리] 4.20.(수) 17:00 자문위원회+공동대표 등 전원적 임원활동가 / 사무실
- [미니전시] 4.20.(수) 온종일 자란 소식지 전시
- [영상상영] 4.20.(수) 온종일 사무실 방문시 수사상영 (자란 소식지로 보는 대구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문의 | 053-427-9782 (김선희)



조직활동2



조직활동3



시민의 힘으로 대구를 바꿉시다!

2022년 활동 회원 설문조사 결과

2022년 활동 회원 설문조사 결과

■ 조사 기간 : 2023.02.01.~16

■ 응답자 수 : 86명

■ 총괄 분석

[답변 결과]

① 회원 구성의 특성 상 4~ 50대 회원 참여자가 많고 ▲후원하는 단체가 많고 (3~4개 이상, 86%) ▲주 관심사는 ▲노동, 언론 등 사회/문화 47%,중앙정치 38%, 지방정치 34% 순이며 ▲지지 정당은 없음 44%, 더불어민주당 36%, 진보정당 18% 순임

② 22년 활동 중 ▲제2 대구의료원 설립 등 공공의료 확충 활동을 가장 높이 평가 하였고(56%)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으며(6점 이상 43%) ▲문제점으로는 회원의 고령화(57%)와 재정 여력의 부족(52%)을 꼽고 있음

③ 한국사회의 문제점으로는 ▲격차와 불평등(65%) ▲권력기구의 권한 남용(57%) ▲사회안전망 부실(51%), 지역사회의 문제점으로는 ▲안정된 일자리 부족(68%)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58%) ▲부동산 문제(43%) 를 뽑음

④ ▲홍준표 시장 감시 시민행동(68%) ▲지방의회 감시활동(52%, 45명)을 23년 주력과제라고 답함

⑤ ▲회지(52%, 45명)와 이메일(48%)을 통해 소식을 많이 접함

▲온라인 활동(53%명)과 포럼, 강좌 등에 참여 의향이 높음

▲회원동아리로는 지역공동체 활동(45.3%)과 시정감시모임(20%),

예산 감시(18%) 활동의 참여 의향이 높음

▲기타 사회봉사모임, 온라인 현안 공부모임 등의 제안이 있었음

⑥ ▲지식기부는 보건의료·사회복지분야가 많았고

▲물품기부 의향(47%)이 있으며

- ▲ 재능기부는 문화예술 탐방, 관람 분야가 많았고
- ▲ 재능기부 방법은 상담이나 자문 또는 강의 의향이 높게 나왔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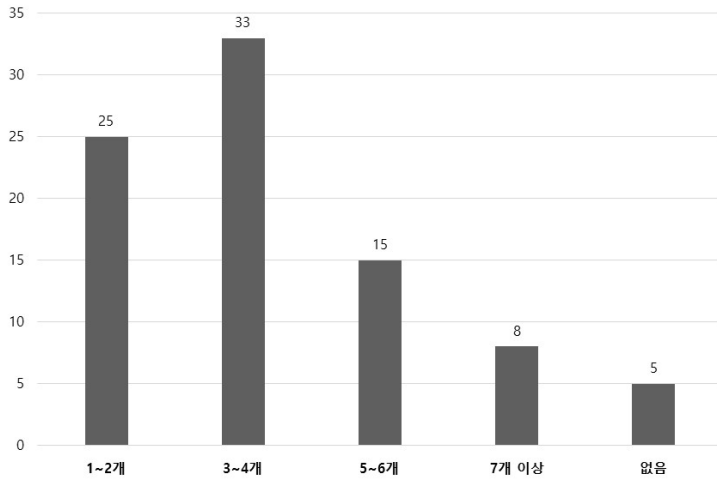
[반영 과제]

- ① 홍준표 시정과 시의회 감시 활동에 주력하되 지역사회 문제 중에서는 소득과 고용의 불안 문제, 인구감소와 청년유출 문제, 과도한 부동산 개발 문제에 대한 능동적 비판과 대안을 모색해야 함
- ③ 비정당 회원이 많으며, 한국 사회문제와 중앙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고 특히 불평등, 권력기구의 남용, 사회안전망 부실을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으므로 ▲정파중립 권력감시운동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중앙정치에 대한 비판, 사회 개혁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함
- ④ 회원의 고령화에 따른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고려한 운동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해야 함
 - ▲ 가장 많은 비중을 점하고 있는 4~ 50대의 회원들은 여러 단체를 후원하고, 중층적인 사회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국사회와 중앙정치 문제에 대한 관심이 크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한 활동 의제, 방식, 참여 수단을 개발해야 함
 - ▲ 장기적으로 원할한 세대교체를 위한 청년세대의 참여와 자주적 활동을 독려하는 문화와 시스템 구축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함
- ⑤ 온라인 기반 활동, 지역공동체 활동, 시의정 및 예산감시 활동, 사회복지분야 등의 학습 및 활동, 물품기부 참여 의향 등이 높으므로 이를 고려한 회원 참여 수단, 회원모임 개설 등의 노력이 필요함

* 설문에 참여해주신 회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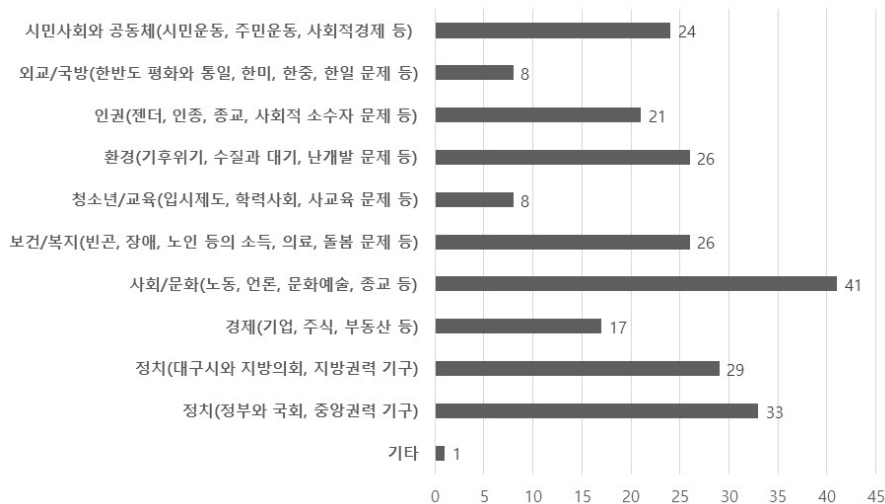
[설문내용 결과]

1. 대구참여연대 외 후원하는 단체의 수



○ 대구참여연대 외에도 후원하는 단체가 3~4개 이상인 회원이 86%(5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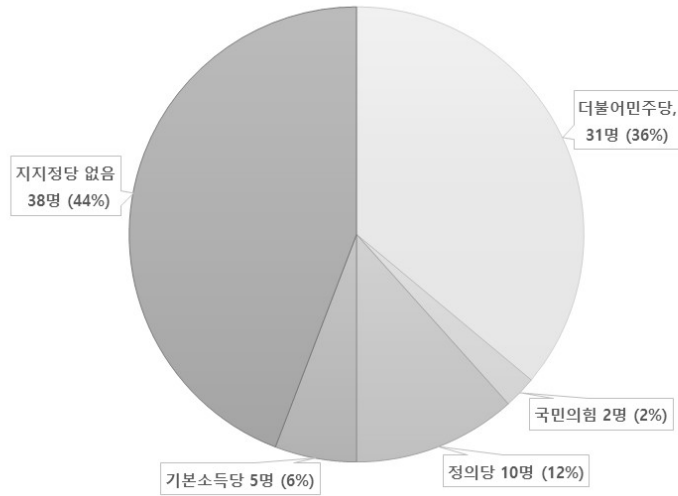
2. 평소에 관심을 많이 두는 분야



○ 회원들의 주 관심사는 ① 노동, 언론 등 사회/문화 47%(41명) ② 중앙정치 38%(33명), 지방정치 34%(29명)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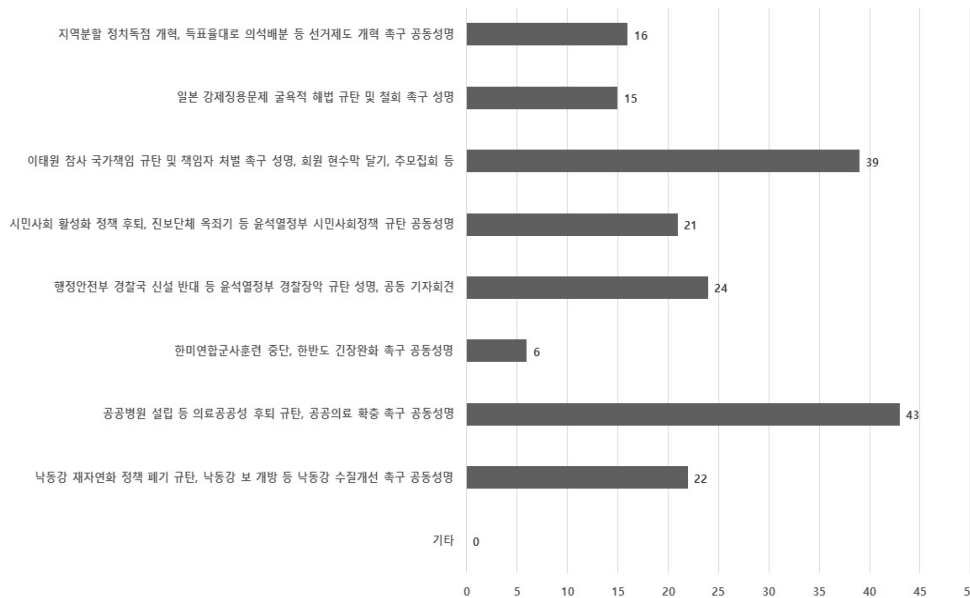
시민의 힘으로 대구를 바꿉시다!

3. 지지하는 정당(원내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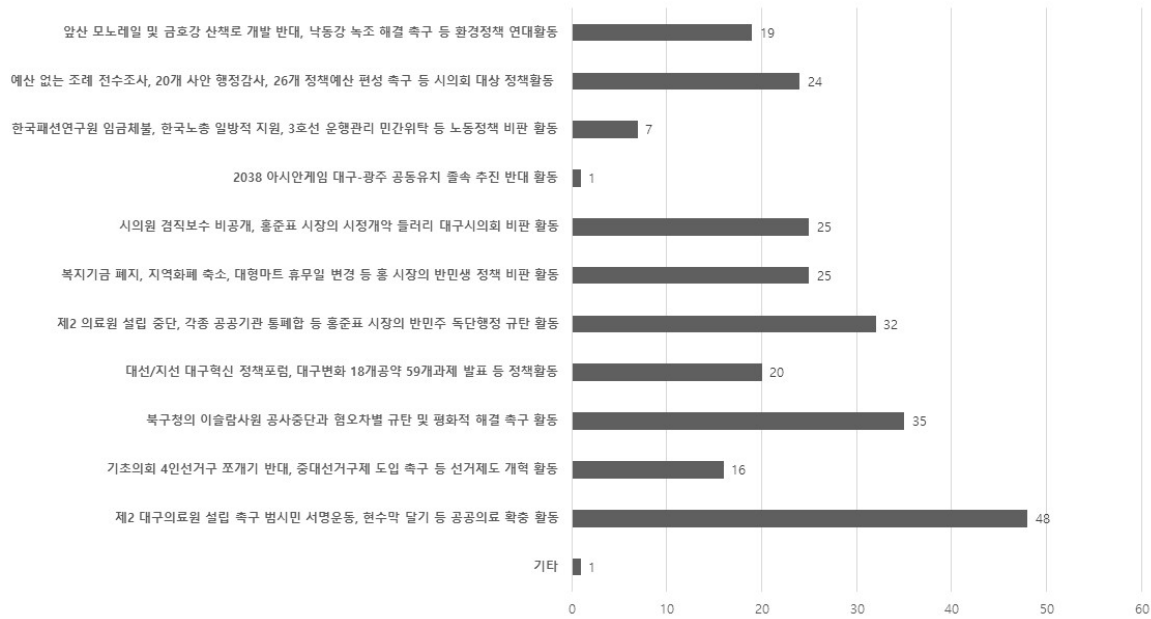
○ 지지정당 없음 44%(38명)으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더불어민주당 36%(31명), 기타 진보 정당 18%(15명) 순으로 나옴

4. 대구참여연대 2022년 활동 중 잘한 활동(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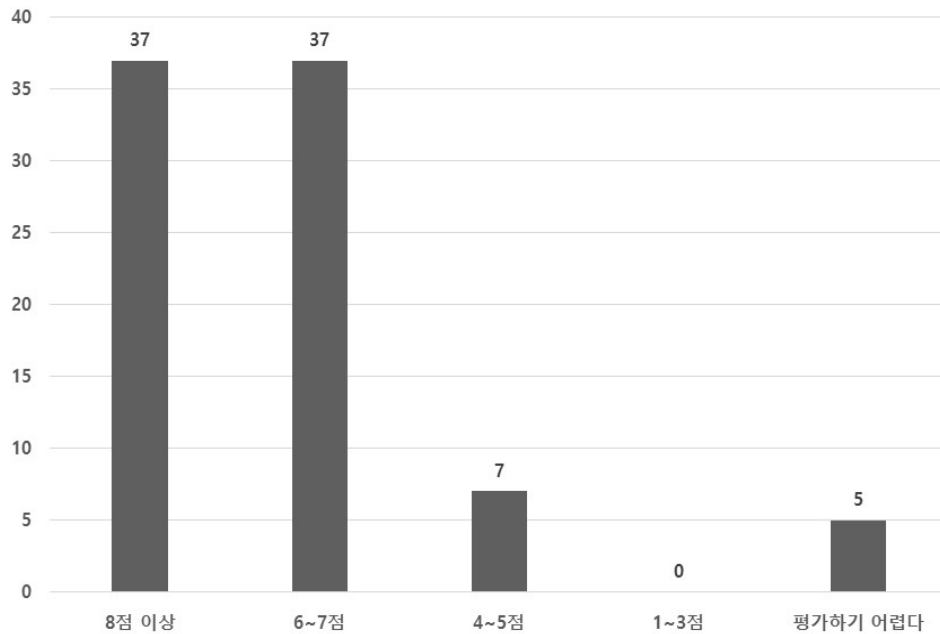
- 제2 대구의료원 설립 등 공공의료 확충 활동을 가장 높이 평가(56%, 48명)
- 그 외 대선 및 지방선거 대응 활동, 흥준표시정 감시활동, 시의회 감시활동 등은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
- * 기타, 매달 후원회비 납부 확인 및 감사 문자 발송에 대한 평가가 있었음

5. 대구참여연대 2022년 활동 중 잘한 활동(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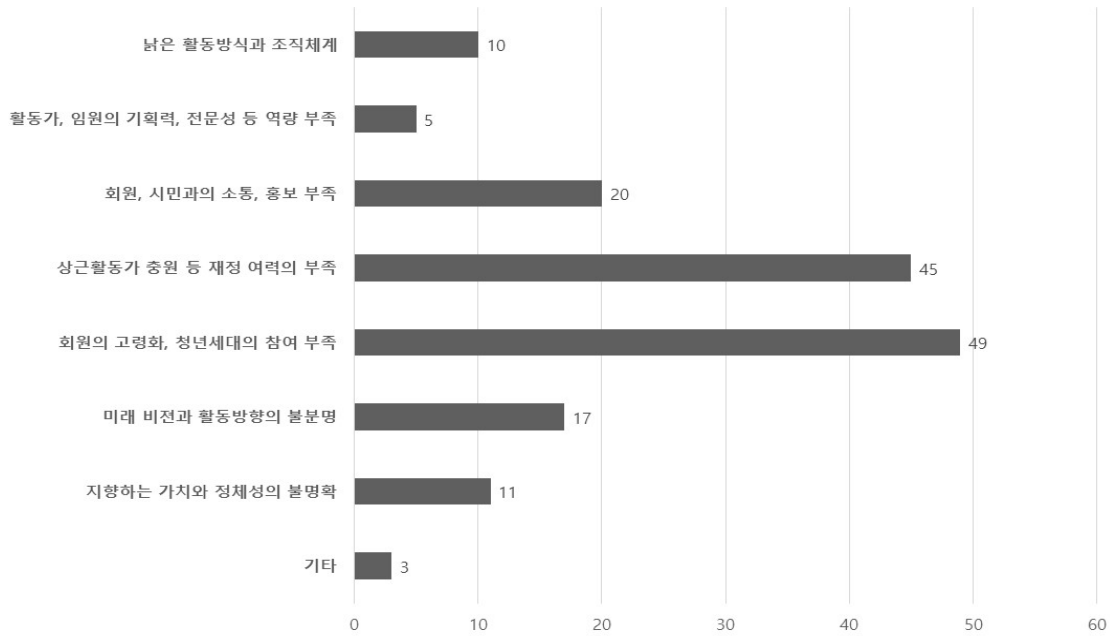
○ 공공병원 설립 활동을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50%, 43명)

6. 대구참여연대 활동 점수 평가(10점 만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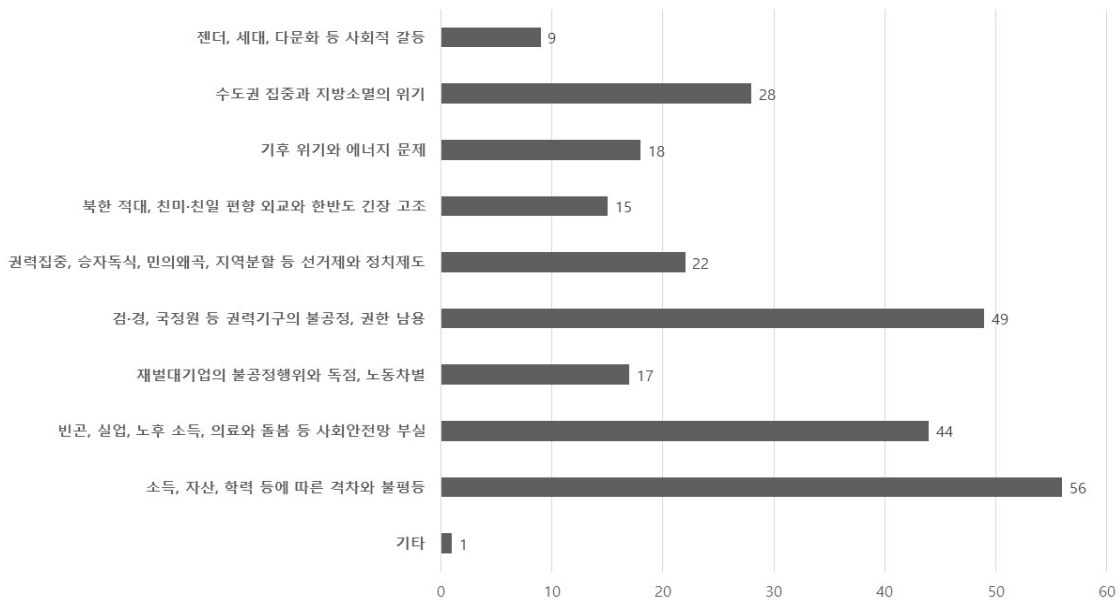
○ 8점 이상과 6~7점이 37명(43%), 전반적으로 평균 이상으로 평가하고 있음

7. 대구참여연대의 가장 큰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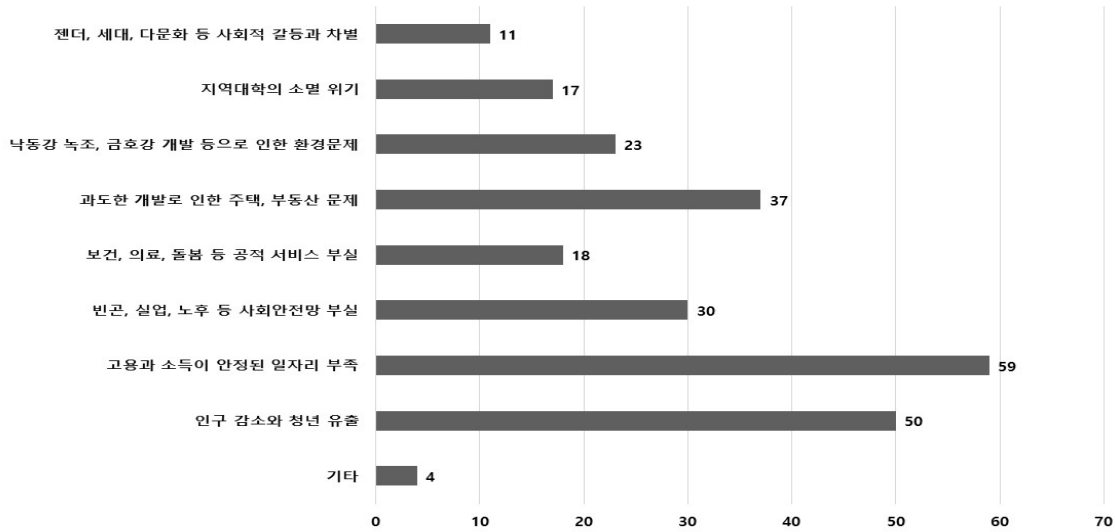
○ 회원의 고령화(57%, 49명)와 재정 여력의 부족(52%, 45명) 가장 많이 꼽음

8.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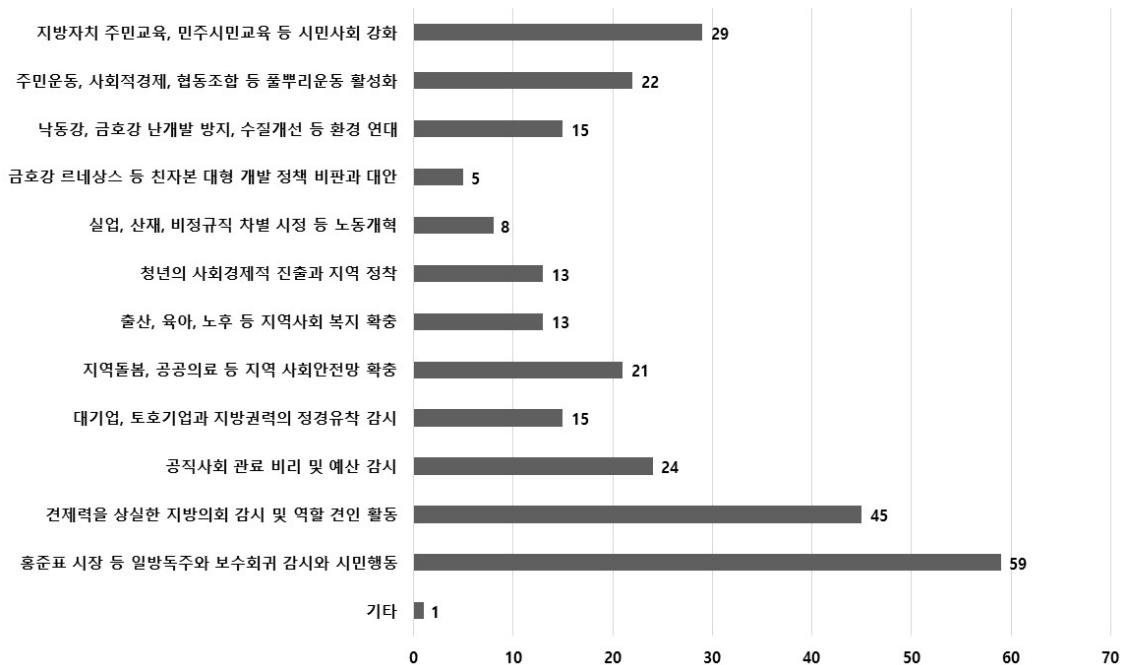
○ ① 격차와 불평등 65%(56명) ② 권력기구의 권한 남용 57%(49명), 사회안전망 부실 51%(44명)를 높게 꼽았음

9. 대구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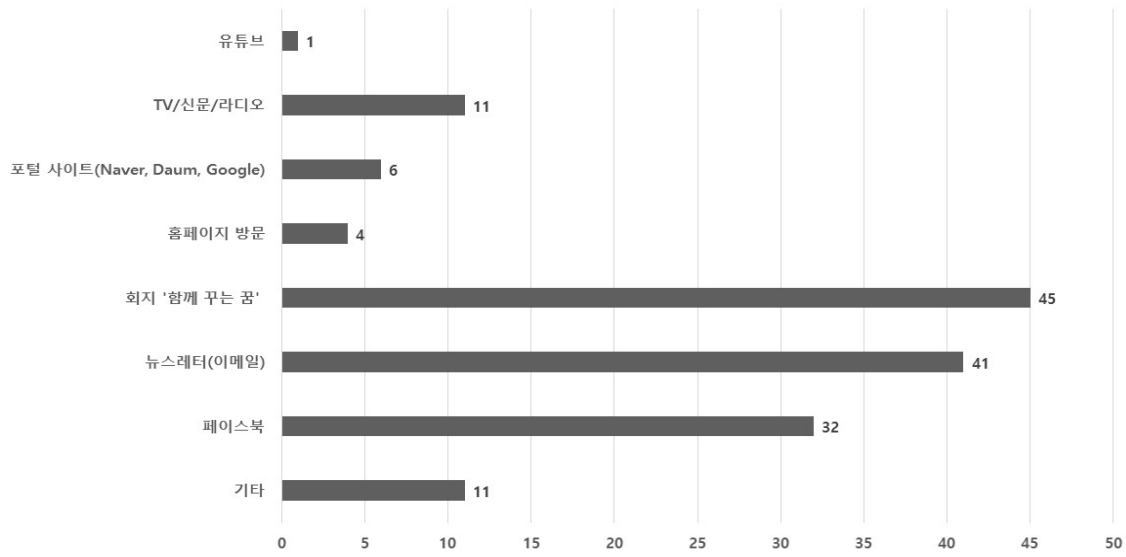
○ ① 고용과 소득이 안정된 일자리 부족 68%(59명) ② 인구 감소와 청년유출 58%(50명) ③ 부동산 문제 43%(37명)순으로 나옴

10. 주력해야 할 활동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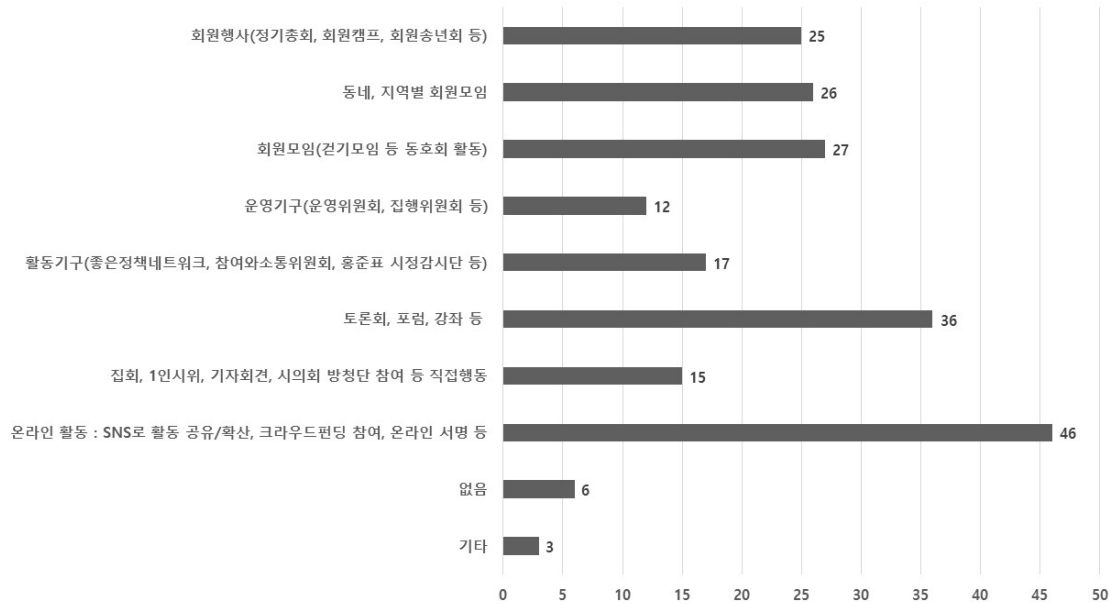
○ 홍준표 시장 감시 시민행동(68%, 59명), 지방의회 감시(52%, 45명)를 주력 과제로 뽑음

11. 소식을 주로 접하는 매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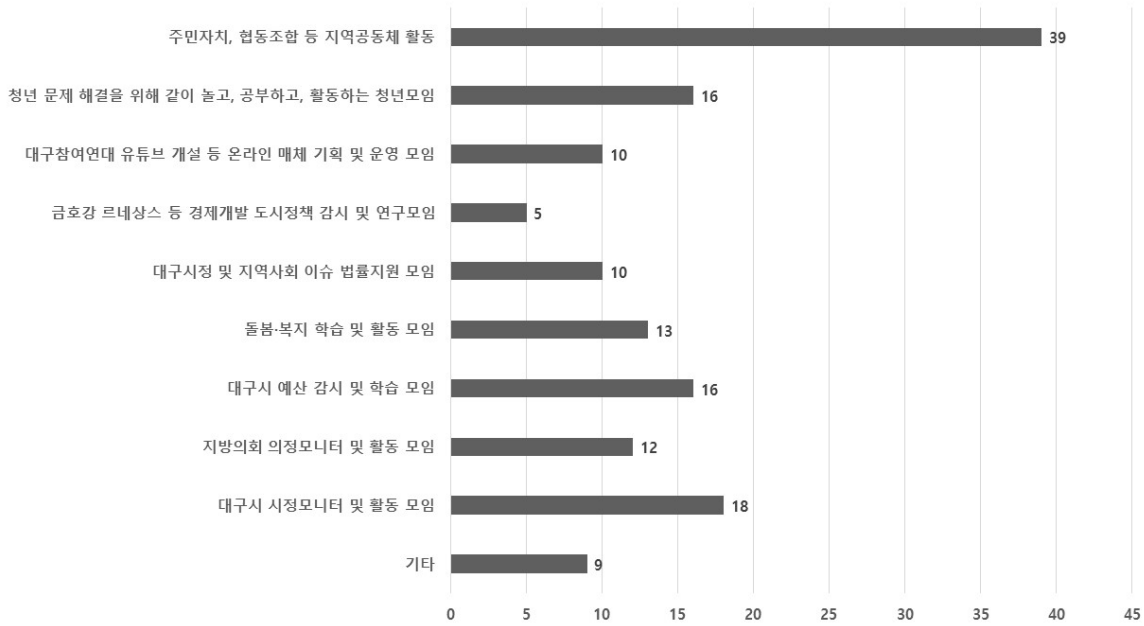
○ 주로 회지 ‘함께 꾸는 꿈’(52%, 45명)와 뉴스레터(48%, 41명)를 통해 소식을 접하는 것으로 나타남

12. 참여할 의향이 있는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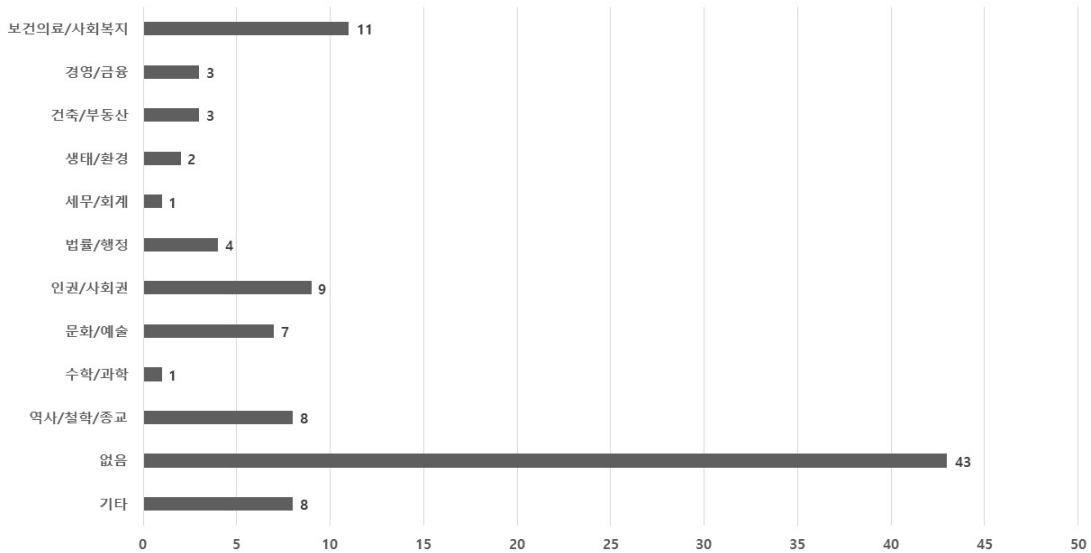
○ 온라인 활동(53%, 46명) 참여 의향이 가장 많았으며, 토론회, 포럼, 강좌 참여가 높게 나옴

13. 참여 의향이 있는 활동모임



- 주민자치, 협동조합 등 지역공동체 활동이 45.3%(39명) 가장 높게 나옴
- 그 다음으로 시청모니터 및 활동 모임이 20%, 예산 감시 및 학습 모임 18% 순으로 나옴
- * 기타 사회봉사모임과 온라인 현안 공부 모임 제안이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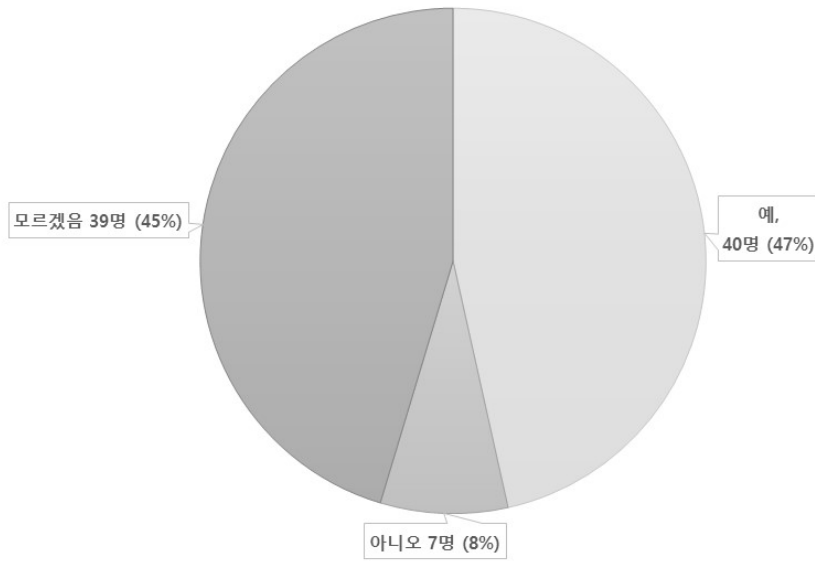
14. 지식기부 의향이 있는 항목



- 보건의료/사회복지분야 지식기부 의향이 11명으로 높게 나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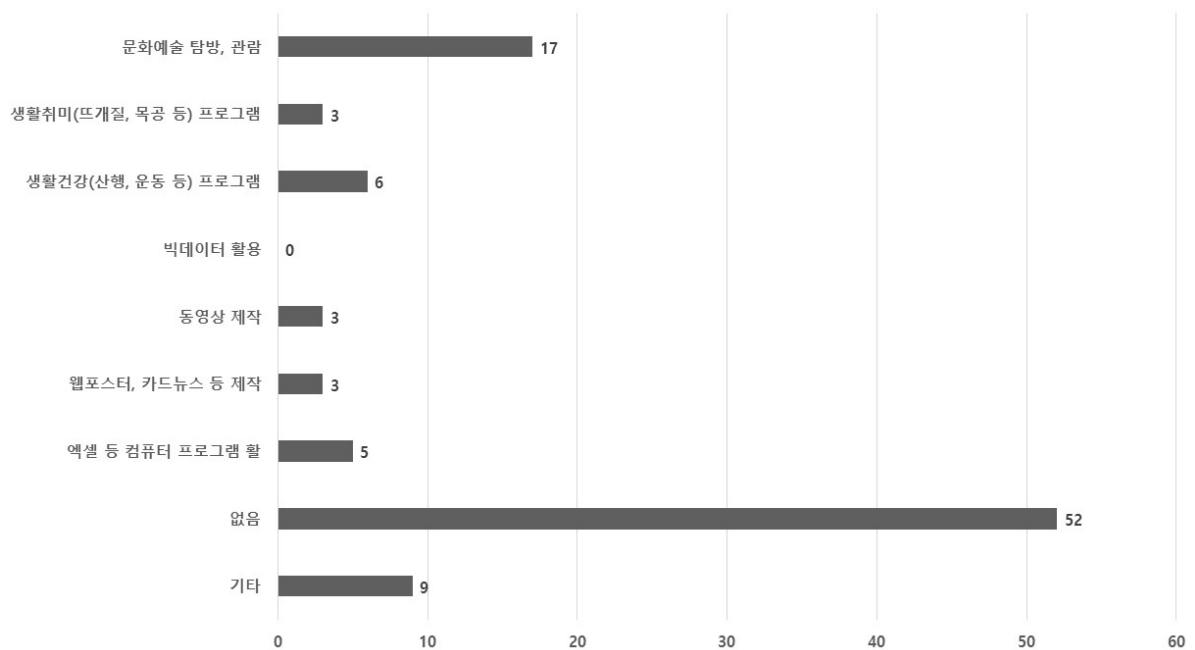
시민의 힘으로 대구를 바꿉시다!

15. 물품기부(생활용품, 작품 등)에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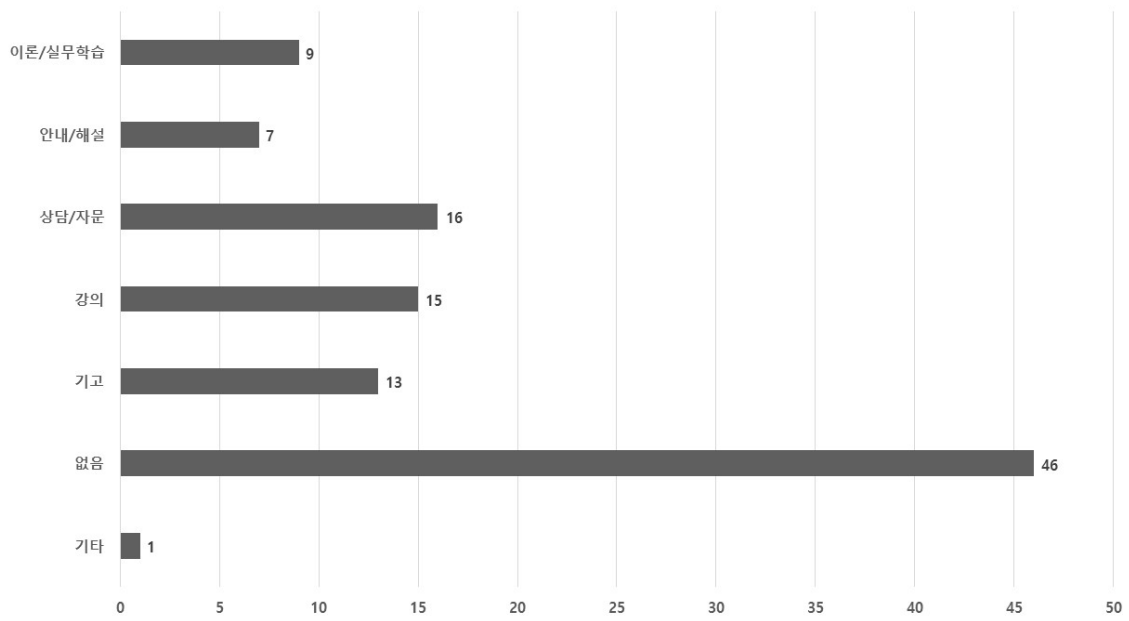
○ 물품기부 의향이 있다는 회원이 47%(40명)로 나옴

16. 재능기부 의향



○ 문화예술 탐방, 관람분야의 재능기부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옴

17. 지식 및 재능 기부의 방식



- 상담/자문(16명) 또는 강의(15명) 형식의 재능기부 의향이 높게 나옴

2022년 활동보고 및 평가

2022 총괄 평가와 과제

2022 조직보고 및 평가

2022 사업보고 및 평가

2022 결산보고 및 평가

2022년 총괄 평가와 과제

주요성과

- ❶ 대구혁신 정책의제를 설정하고, 중장기 활동과제 구체화
 - 20대 대선 ‘대구변화 3대 비전 14대 의제 42개 과제
 - 돌봄·자치·청년 대구변화 4대 비전, 18개 공약, 59개 정책과제

- ❷ 대구시, 시의회를 감시, 견제하는 대표적 시민단체의 위상 확보
 - 공공기관 통폐합, 위원회 통폐합 등 지속 비판, 정책 제안
 - 4개 분야 26개 정책예산 제안, 행정사무감사 20개 사항 감사 요구
 - 대형마트 휴업일 변경 직권남용 고발, 대구시 유튜브 선거법 위반 고발 등

- ❸ 돌봄·공공의료 등 사회정책 활동의제 확장, 주도력 향상
 - 지역돌봄보장조례제정 등 의제의 선도적 제기
 - 제2 대구의료원 설립 필요성 공론화, 대구의료원 강화

- ❹ 작지만 구체적인 시정 변화 견인
 - 공공기관의 주민참여예산제 부당 개입 관행 개선
 - 대구시 유튜브 홍준표 정치매체 전략 견제
 - 대구시 노동기본계획에 노동개혁 과제 반영

- ❺ 조직·회원·재정 유지
 - 어려운 여건 중에도 권력감시 활동을 적절히 수행, 모금 목표 달성, 회원 확장 도모 등 활동력, 조직력, 재정력 감소를 방지하였음

주요과제

- ① 단기과제와 현안 대응은 적절, 중장기 비전·전망은 불명확**
 - 대구참여연대 운동의 가치와 비전, 대구사회 변화 전략 재구성
 - 이에 따른 중단기적 실천과제 수행 방식의 구체화
 - 이를 통한 회원 결집, 시민참여 확대로 새로운 진로를 개척해야 함

- ② 주력사업으로 설정한 좋은조례만들기운동 등 지방선거 후 변화된 조건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였음**
 - 의제별 당사자 협동, 지방의원 등 제도권 내 협력 네트워크 구축, 대학 등 전문기관의 공동기획 등 효과적인 수단과 방식을 찾아야 함

- ③ 시·의정 감시 및 정책 활동이 사안별 대응에 머물고 있음**
 - 주력사업 중심으로 사업 간소화, 집요한 활동으로 결과를 보는 활동이 필요

- ④ 각급 조직기구 회의 참여율, 임원 및 회원의 역할 감소 등 조직 활력이 떨어짐.**
 - 회원, 임원의 관심사와 현실적 여건에 맞는 참여 방식과 역할 수단을 찾아야 함
 - 업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회원이 할 수 있는 일은 회원이 할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함

- ⑤ 여러 가지 활동이 시민참여, 후원금 확대, 회원 확장으로 이어지지 못함. 이를 연계하는 방식과 수단을 찾아야 함**

2022년 조직보고 및 평가

1 회원/회비

○ 회원수(2022.12.20. 기준)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213	1051	1005명	1003명	99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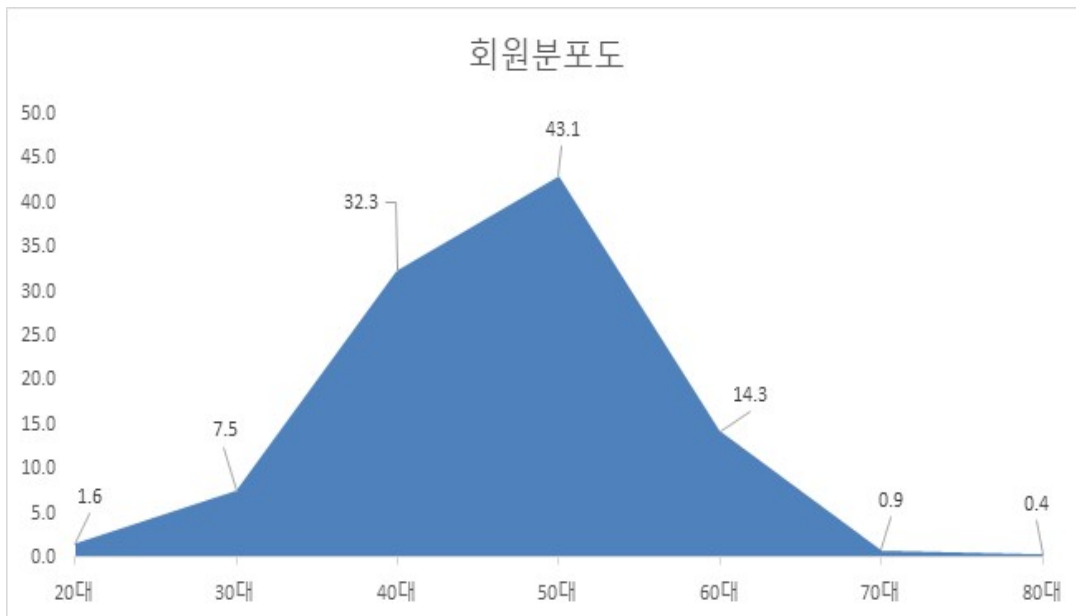
※ 2022년 해지회원 42명, 신규가입 34명

○ 회비현황(월평균 회비납부수/액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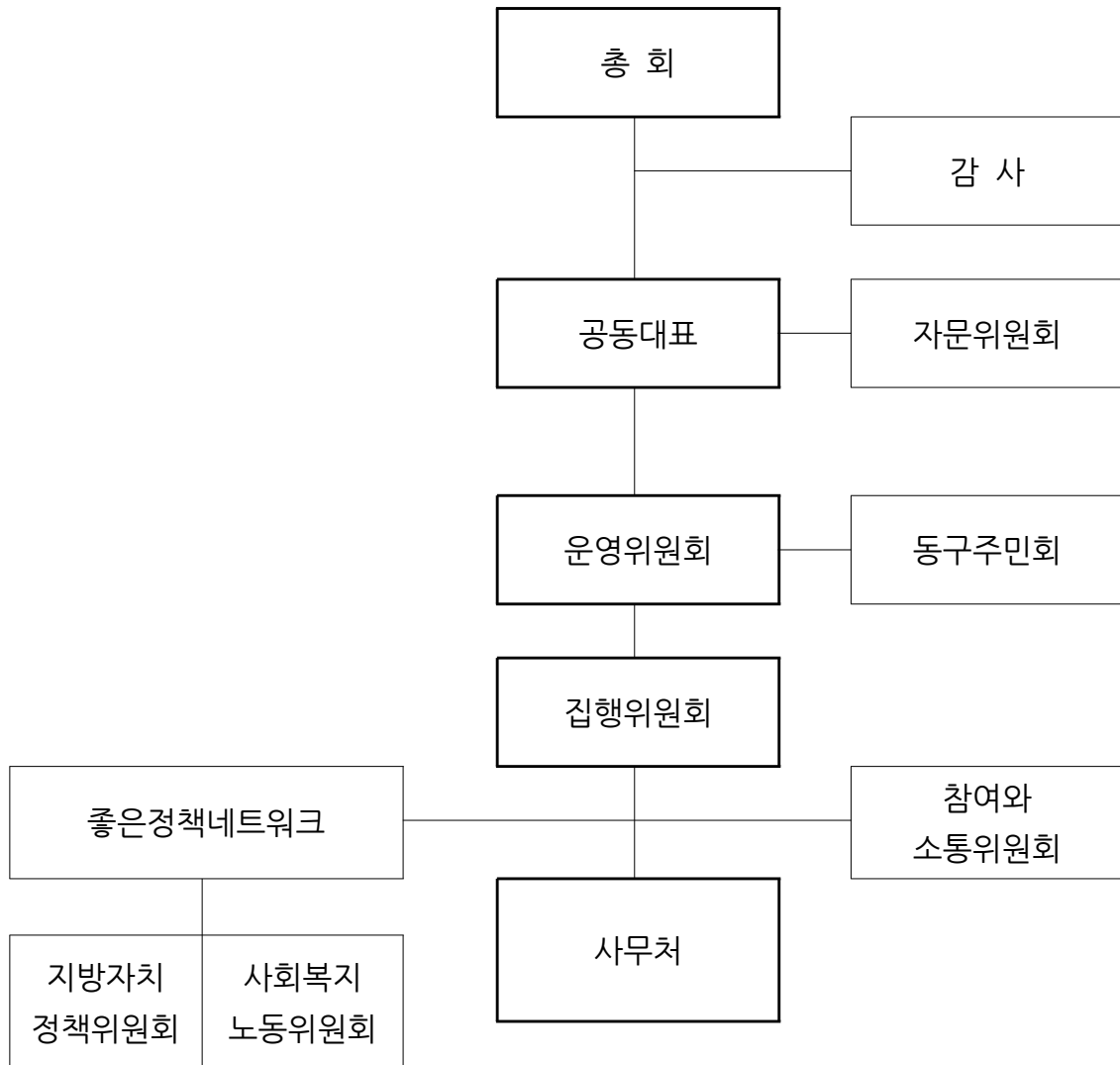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673(826만원/64%)	578(793만원/58%)	569(780만원/55%)	581(775만/58%)

※ 회비 납부율 소폭 상승, 회비액수는 소폭 하락 추세

○ 회원구성



② 조직 구조와 일하는 사람들



① 총회: 정기총회(22. 2. 24)

임시총회(온라인 회원투표/ 22. 7. 11~ 13)

: 잔여재산 귀속 조항, 온라인총회 공고 기간 단축 등 정관 개정

② 자문위원회

○ 전직 대표 등 12명, 년 2회 전현직 대표단 등 임원단 모임 개최

○ 김민남, 김운상, 김주태, 김영화, 백승대, 법 광, 원유술, 이성희, 장영목, 최봉태, 오규
섭, 이두옥

③ 감사: 사업감사 이승익(변호사)

회계감사 박선형(회계사)

④ 공동대표

- 박경로, 정혜숙(※ 엄창옥 대표 교육감 출마로 5월 사임)
- 운영위원회, 회원 행사, 기자회견 등 내외 주요 활동 참가

⑤ 운영위원회

- 17명, 정기회의 년 8회, 온라인 임시회의 년 2회 개최
- 평균 출석 6~ 7명, 정족수 부족으로 연기 또는 미개최 3회
- 류영준(위원장), 박종률(부위원장), 정희선(부위원장), 양희(동구주민회), 김보영(집행위원장 권한대행), 김언호, 김주욱, 김채원, 김형진, 박근식, 박성미, 박정민, 백경록, 이승연, 이종득, 윤지현, 한경국(※ 강우진 집행위원장 중도 사임)

⑥ 집행위원회

- 7명, 정기회의 년 8회 개최, 온라인 임시회의 년 3회 개최
- 평균 출석 4~ 5명, 정족수 부족으로 연기 또는 미개최 3회
- 김보영(위원장 권한대행), 강금수, 김형진, 문용우, 박근식, 장지혁, 한상훈

⑦ 동구주민회

- 박호석 대표 외 운영위원 9명, 년 회 회의, 평균 참석 명
- 대표:박호석, 운영위원장 :양 희
- 운영위원 : 김정화, 민경환, 박인규, 장지혁, 장영훈, 조윤식, 윤문주, 이춘곤

⑧ 좋은정책네트워크

- 17명, 년 2회 회의 개최, 평균 7~ 8명 참석
- 김보영(소장, 사회복지노동위원장), 이소영(지방자치정책위원장), 이원준(사회복지노동부위원장), 강우진, 김언호, 김영숙, 한경국, 장지혁, 백경록, 고한용, 김동은, 문용우, 최병우, 김명환, 박경순, 박근식, 박정민

⑨ 참여와소통위원회

- 위원장 외 회지 필진 7명, 격월 회지 발행, 홈페이지, 페이스북 관리 등
- 회원참여, 유튜브 운영 등 기획, 실행 인력 부족
- 김형진(위원장),

⑩ 상벌위원회

- 화상회의 2회(8. 3, 17)

시민의 힘으로 대구를 바꿉시다!

서인찬회원의 회원간 갈등 유발, 명예훼손 등 문제
개최 사유와 소명 절차 등을 안내하는 등기우편 발송/ 미답변
회원 탈퇴에 따라 재가입 시 징계절차 재개하기로 하고 종료

- 김보영(집행위원장 권한대행), 정희선(운영위원), 한경국(운영위원),
강금수(사무처장), 이정화(회원), 최나래(회원)

⑪ 인사위원회: 운영위원장 및 집행위원

김미지 청년인턴 활동가 사직 처리 및 신규 채용 승인(5.30)

조영태간사 특별휴가: 교육감선거 지원활동 야근, 주말근무 등 고려

강금수처장 안식월 휴가: 8.1~ 30

김선희국장 병가: 11.24~ 12.2

⑫ 사무처

- 주 1회 회의, 년 40회 정도/ 주력사업 전담 및 집중할 인력 체계 미흡
- 강금수 처장, 김선희 국장, 조영태 정책간사, 한현희 청년인턴(22.12 종료)

3] 평가와 과제

평가

- ① 3년간 이어진 코로나19, 국내외 경제 침체,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의 패배와 과거 회귀, 사회정책의 후퇴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정치적 좌절감이 증폭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시민운동에 대한 실망감도 겹쳐 회원, 회비의 감소 또는 정체 상태가 지속되고, 조직의 활력도 떨어지고 있음
- ②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대면활동 제약 등의 사정을 감안해도 각급 조직기구의 회의 및 활동 참여율 감소 등 조직의 활력이 떨어지고, 사무처와 일부 임원들의 부담이 높아짐
- ③ 임시운영위, 임시총회, 인사위원회, 상별위원회 등 대면, 비대면으로 적절하게 상황에 대처하였으나, 상황 발생 초기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처하지 못한 점이 있음. 회원 징계 문제, 교육감 선거 참여 등
- ④ 사무처가 안정되고, 활동 효율성이 높아졌으나, 주력 활동에 전담,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은 여전함

과제

- ① 사무처 중심의 기획, 제안, 집행 등 현안 대응의 틀을 벗어나 임원, 회원 봉사자들과 함께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고, 정세 판단 및 과제 설정, 활동 기획 및 집행을 도모하는 조직문화와 활동방식을 모색해야 함
- ② 운영위원회, 활동기구의 회의 참여율을 높이고, 위원들의 관심사와 전문성에 맞게 역할 할 수 있는 운영방식, 참여의 효능감을 높이는 활동방식을 찾아야 함
- ③ 임원, 회원들이 우리 단체의 활동에만 집중하거나 대면활동에 많이 참여하기 어렵고, 사무처 인력을 충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므로 대면+비대면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상근 회원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함
- ④ 공동대표단을 확충하여 내외적 리더십을 높이고, 고유활동은 물론 새롭게 등장하는 과제들을 함께 논의할 인적역량을 발굴, 조직을 보강해야 함
- ⑤ 사무처와 임원 인력만으로는 활동과제를 수행하기 벅차고, 주력활동에 집중하기 어려우므로 회원들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함
 - 자동화 프로그램 구축 등을 통해 업무를 간소화하고, 업무목록을 세분화해서 회원들이 부담 없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작고 구체적인 일에 참여하고
 - 재정력 범위에서 시간제, 요일제 등 비상근 회원 활동가 운용 방안도 필요함

2022년 사업보고 및 평가

1] 대선·지방선거 대응 활동

[주력사업/좋은정책네트워크]

활동내용

1] 논평/성명

- [대선 논평] 김재원 무소속 출마, 국민 우롱하나?(1.29)
- [대선 논평] 집값 급등, 공급 부족 때문? 토지보유세 강화해야(2.3)
- [대선 기자회견] 촛불정신 계승과 실현을 위한 비상시국 기자회견(2.23)
- [성명] 정치개혁안 당론 환영, 기초의회 중대선거구부터(3.2)
- [대선 논평] 자치분권에 관한 최소한의 고민도 없는 윤석열 후보 비판(3.3)
- [지방선거 논평 1] 시책 뒤집기, 토론거부 홍준표후보 비판(5.25)
- [지방선거 논평 2] 시장, 교육감후보 차별금지에 대한 태도 비판(5.26)
- [지방선거 논평 3] 홍준표후보 공공의료 인식 비판(5.27)
- [지방선거 논평 4] 지방선거 결과 정치독점 심화 우려, 소통과 혁신 촉구(6.2)

2] 정책 활동

- [보도자료] 20대 대선 '대구변화 3대 비전 14대 의제 42개 과제'발표(2.14)
- [보도자료] 자치분권을 위한 20대 대선 정책의제 발표(2.24)
- [정책포럼] 지방선거 돌봄, 자치, 청년 정책공약(2.28)
- [보도자료] 대구변화 4대 비전, 18개 공약, 59개 정책과제 발표(5.16)

평가·과제

- 1] 대구혁신 비전, 정책공약, 과제 발표는 지역사회에서 크게 주목을 받거나 정책공약으로 채택되지는 못하였으나 시민사회의 시각에서 대구변화의 과제를 제시하고,대구참여연대의 중장기 활동방향과 과제를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특히 지방선거 이후 8대 시정, 의정에서 제도화를 위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활동필요.

- ②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에 전파되고, 채택을 압박하는 활동을 능동적으로 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 정책이 주목받지 않는 선거, 특정정당이 압도하는 지역 선거 구도에서 정책 제안의 영향력이 낮고, 채택되기 어려운 객관적 조건을 넘어서기 쉽지 않지만 본선적 선제적 담론화, 여론적 압박, 정당과 후보에 대한 공익적 정치로비 등 효과적 수단을 찾아야 함.
- ③ 인적, 물적 역량의 한계 등 현실적 조건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일을 나열적으로 하지 말고 주력사업 중심으로 사업을 간소화, 집요하게 하여 결과를 볼 필요가 있음. 개혁의제이자 민생의제가 되는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시민참여, 회원확장을 기할 필요가 있음.

② 제2 대구의료원 설립 활동

[주력사업/좋은정책네트워크]

활동내용

① 성명/보도자료

- [성명] 대선후보 제2 의료원 설립 공약 촉구(2.18)
- [성명] 권영진 시장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추진 발표에 대한 입장(3.16)
- [성명] 시의회, ‘제2 대구의료원 설립 및 정부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 촉구(4.11)
- [성명] 국민의힘 시장후보 경선, 제2의료원 부동의 후보 안된다!(4.21)
- [성명] 제2 대구의료원 설립, 홍준표 후보의 약속만 남았다!(5.3)
- [보도자료] 홍시장 인수위에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촉구 의견서 제출(6.21)
- [성명]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조례 폐기 촉구(10.11/전국)
- [성명] 제2 대구의료원 설립 문제 정책토론을 청구하며(10.12)
- [성명] 시민 400여명, 제2 대구의료원 설립 문제 정책토론청구(11.16)
- [성명] 대구시는 대구의료원 강화와 동시에 제2 의료원 설립에 나서라!(12.9)
- [보도자료] 시민토론청구로 대구시 제2대구의료원 설립 문제 토론회 개최(2.13)

② 기자회견/집회/시민행동

- [기자회견] ‘새로운 공공병원 설립 대구시민행동’ 발족(1.20)
- [기자회견] ‘제2 대구의료원 설립 범시민추진위원회’ 구성 촉구(3.3)
- [기자회견] 제 2대구의료원 설립 촉구 범시민 서명운동 돌입(3.28)
- [거리캠페인] 범시민 서명운동 토요일 거리캠페인(총 9회)

시민의 힘으로 대구를 바꿉시다!

- [기자회견] 6.1 지방선거 공공의료 정책제안 기자회견(5.2/전국)
- [집회/기자회견] 대구시장 후보들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약속하라!(5.4/전국)
- [시민행동] 제2의료원 설립 공약 촉구 거리현수막 게시(68개)
- [시민행동] 제2의료원 설립 공약 촉구 영남일보 광고(5단 통광고)
- [기자회견] 진주의료원 폐원 홍준표,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약속하라.(6.28/전국)
- [기자회견] 홍준표 시장과 시의회는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을 즉시 추진하라!(7.5)

③ 정책활동

-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민주당 포용복지국가 위원회’ 정책 간담회(1.10)
- 대구 공공의료 정책워크숍 1차(1.12)
- 이재명후보와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정책협약 체결(3.5)
- 대구 공공의료 정책워크숍 2차(3.16)
- 제2 대구의료원 설립 문제 정책토론청구, 대구시 주최 토론회 개최(2.14)

평가·과제

[평가]

① 의제의 중요성에 비해 시민사회단체 또는 운동역량의 참여도가 높았다고 볼 수는 없음

○ 기존의 연대 이슈에 일반적으로 참여해 왔던 단체 위주로 되었고, 협동조합이나 마을단체 등으로 저변이 확장되지 못함. 단체 연대를 기반으로 하되, 각 분야 신망있는 인사, 풀뿌리 단체나 현장의 이해관계 당사자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조직 구조가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

② 대선과 지방선거 전후 시의적절한 메시지, 실천활동으로 중요한 정치 의제, 공론 형성에 기여

○ 다수의 기자회견과 성명서, 범시민 서명운동, 거리 현수막 게시와 언론광고 등 짧은 대선 및 지방선거를 전후한 짧은 기간에 시의적절한 메시지를 내고, 대시민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유의미한 활동으로 중요한 정치적 의제로 부각시켰으며

- 의제의 대중성, 언론의 우호적 보도 등의 상황을 감안하면 17,000여명의 서명이 많다고 볼 수는 없으나 지역사회의 정치환경, 시민행동의 조직력 등을 고려하면 적은 숫자도 아니고, 언론보도 등을 통해 시민적 여론형성에 기여하였음

③ 양대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쟁점화와 의제 채택을 위한 정치적 기획, 실천이 부족

하였음

- 보수의 일방적 우위라는 정치 지형, 홍준표의 압도적 지지율 등 결과가 뻔한 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 보수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었다는 점, 의제에 동의하는 정당과 지지자들, 일반 유권자들의 폭이 넓었다는 점 등을 고려, 의제와 정치를 연계한 기획, 선거 시기의 특성에 맞는 실천을 통한 정치적 영향력은 부족하였음

④ 단기간, 어려운 조건에서 공공의료 부족 문제 제기, 제2 의료원 설립 필요성 대중화, 지역 의료공공성 강화 여론형성, 대구의료원 강화 기여 등 성과가 있었음

[과제]

① 대구시의 공공의료 정책 이슈에 대한 모니터와 비판, 현장과 당사자의 요구에 기반한 활동을 구체화하면서 정치적 기회가 왔을 때 대중적 운동을 전개할 기반을 마련해야 함

② 공공의료와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 중심의 활동을 모색하고, 시민사회단체나 노동조합 등과의 연대를 강화해야 함. 그들이 제시하는 요구와 과제를 반영하는 활동계획이 필요함.

③ 시민사회단체 연대만으로는 대중적 확장이 어렵고, 생동감이 떨어짐. 정치적 기회가 왔을 때 대중적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동네방송국과의 협업, 풀뿌리 조직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저변확대에 힘을 쏟아야 함

③ 홍준표 시·의정 감시 및 정책활동

[주력사업/좋은정책네트워크]

활동내용

① 성명/논평

[성명] 9대 시의회 의장단 선거 방식 진일보, 그러나 문제점 여전(6.16)

[성명] 대구시설공단 주민참여예산제 부당개입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6.17)

- [성명] 홍준표 당선자, 좋은정책까지 버려서는 안된다(6.24)
- [논평] 홍준표 당선자, 시정철학과 정책과제 수정 필요(6.29)
- [성명] 공공기관 통폐합 법령 위반 등 문제 많다. 개혁특위부터 구성하라(7.19)
- [성명] 연합뉴스 절독 등 홍준표시장 독단행정 규탄(7.20)
- [논평] 대구시 행정개혁 졸속 추진 비판, 시의회 ‘행정개혁특위’ 구성 촉구(9.6)
- [성명] 시의회, 부실심사 졸속처리 우려, ‘행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촉구(9.13)
- [성명] 시민참여 위원회는 폐지, 홍 시장 정치자문기구는 신설, 문제있다(9.14)
- [성명]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내정자(문기봉) 적합여부 검증 촉구(9.21)
- [성명] 대구시의회, ‘아시안게임 대구·광주 공동유치 동의안’ 유보하라!(10.15)
- [성명]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에 동조하는 홍준표 시장 비판(10.4)
- [성명] 대구시의회만 의원의 겹직 보수 정보 비공개, 알권리 침해(10.5)
- [성명] 대구교통공사는 일방적 민영화·구조조정 중단하라!(10.25)
- [논평] 홍준표 시장님, 이래도 됩니까(2) - 7개 특·광역 시장 공무 일정 비교(12.5)
- [논평] 홍준표 시장님, 이래도 됩니까(3) - 7대 특·광역시장 업무추진비 비교(12.9)
- [성명] 홍준표 시장님, 이래도 됩니까(4) - 의회와 법치 무시하는 홍 시장(12.14)
- [논평] 홍시장님, 이래도 됩니까(5) - 무슬림 학생 차별 방지, 문제있다(12.19)
- [성명] 홍시장님, 이래도 됩니까(6) - 대형마트 휴무일 변경, 노동탄압 규탄(12.21)
- [성명] 도시브랜드를 시장 마음대로, 안 돼!, 시민의견 수렴 조례 제정해야(1.27)
- [성명] 대중교통 무임승차 70세 상향, 중단 촉구(2.9)
- [성명] 비위 의원 의정비 지급 중단, 조례 제·개정 촉구(2.13)

② 정책제안/보도자료

- [보도자료] 9대 시의회 의회혁신 7대 정책과제 제안(7.7)
- [논평] 합의제 감사위원회 설치 조례에 대한 의견(7.14)
- [성명] 대구시의회 조례개정 중단하고 ‘공공기관개혁특위’ 구성하라(7.18)
- [보도자료] 2023 대구시 예산안에 4개 분야 26개 정책예산 반영 촉구(10.18)
- [보도자료] 대구시 노동 예산 = 한국노총 예산, 오명 벗어나야(10.21)
- [보도자료]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20개 요구안 발표(11.23)
- [언론기고] ‘홍준표 시정평가와 정책제언’ 오마이뉴스 기고(5회)
- [토론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방법 개선방안(8.25/의정참여센터 공동)
- [토론회] 8대시장 9대의회 혁신 정책과제(8.31/오마이뉴스, 의정참여센터 공동)
- [보도자료] 예산 없는 조례 무더기, 전수조사와 제도개선 필요(11.28)
- [보도자료] 홍 시장 매체로 전락한 대구시 유튜브, 시의회에 진정서 제출(1.11)
- [보도자료]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직권남용 등 홍준표 시장 검찰에 고발(1.30)

평가·과제

- ① 홍준표 시장의 공공기관 통폐합 등 제왕적 행정, 시정개악과 이를 견제하지 못하는 대구시 의회의 문제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능동적으로 수행. 견제세력의 약화, 언론의 감시도 약화된 상황에서 비판세력의 역할과 위상을 확보하고 있음
- ② 논평 시리즈, 조례 무력화 실태 등 조사분석에 기반한 문제제기와 의회혁신 정책제안, 예산 편성 정책제안, 행정감사 정책요구 등 비판에 그치지 않고 개선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뜻있는 문제의식이 있는 의원, 공무원 등의 반응을 조금씩 끌어내고 있음
- ③ 그러나 흥 시장과 시의회가 긴장하고 개선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고 사안별 비판과 제언에 그치고 있음. 감사청구와 고발 등 주목을 받고, 결과를 보는 활동, 협력의원 발굴 등으로 제도개선에 이르는 활동의제와 방식을 개발해야 함
- ④ 지방선거 전후 연구, 제안한 대구혁신 정책방안을 구체화하여 조례, 예산 등 제도적 결과에 이르는 활동을 지속해야 함. 아울러 금호강 르네상스 등 대구 미래를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대응력이 약한점도 문제, 감시 및 대안 제시 역량을 마련해야 함

4 회원·조직 사업[참여와소통위원회]

활동내용

- ① 회지 ‘함께 꾸는 꿈’ 격월 발행(년 6회)
- ② 창립기념 홈커밍데이 개최
- ③ 하계회원캠프 개최
- ④ 회원 걷기모임 2회 개최
- ⑤ 홈페이지 개편 및 페이스북 운영
- ⑥ 뉴스레터 월 2회 발행
- ⑦ 2022 회원확장 및 후원금 모금 캠페인
- ⑧ 설맞이 선물구매 재정사업
- ⑨ 2023 회원의견조사(23.1.30~ 23. 2. 14)

5 동구주민회

- 3. 9 새로운 공공병원 대구시민 시민행동가입 - 전체회의2회 참석, 서명운동, 현수막걸기
- 4.14 세월호8주기 현수막 걸기
- 4.16 세월호참사 8주기 세월호리본 나누기
- 5. 5 동구어린이날 대잔치 행사 참여 및 부스운영
- 5. 9 새로운 공공병원건립 현수막 달기
- 5.28 안심마을 행복 음악회 100회 특집, 후원 및 참여
- 8.15 금호강 산책길 조성 안심습지 현장조사 참가,
- 10. 7 장애인 시간제보호센터 ‘마실’ 1인 시위 방문
- 10.14 장애인 시간제보호센터 ‘마실’ 기자회견, 거리행진 참여
- 10,12 금호강르네상스, 철회 기자회견 참석
- 10.22 안심마을 마을 축제, 준비 및 참여
- 10.29 이태월참사 추모 현수막 걸기
- 11.15 금호강 삼질 규탄대회 (박호석대표참석)
- 11.22 금호강 파크골프장건설 반대 기자회견 참석 및 현장조사
- 11.26 지저동 마을협동김장 주관
- 11.30 찾아가는 민주시민교육 1강
- 12. 3 안심마을 협동김장 참여
- 12. 7 찾아가는 민주시민교육 2강
- 12.14 찾아가는 민주시민교육 3강

평가·과제

[평가]

- ❶ 회지, 홈페이지, 뉴스레터, 페이스북 등 소통 기반이 안정화되었음
- ❷ 하계회원캠프, 회원걷기모임 등 소박하나마 회원참여를 도모하고, 대면으로 진행하였음
- ❸ 당초 계획한 대구참여연대 유튜브 등 활동 홍보 및 시민소통 채널 개통은 미수행
- ❹ 활동을 열심히 해도 시민들에게 알리고, 회원확장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

[과제]

- ❶ 회원 소통을 넘어 회원참여 기획, 시민소통 채널 개통 등을 함께 논의, 수행할 인적 역량을 확충하고, 활동과 회원모집을 연계하는 방안을 찾아야 함
 - 회원의 관심사와 기호, 재능과 참여 의식, 참여 가능한 방식과 수단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작지만 구체적인 참여를 끌어내는 조사
 - 회원가입 기간별로 분석해서 차이를 고려한 참여 주제, 방식, 역할을 고민해야 함
- ❷ 회지, 회원이 할 수 있는 코너는 회원에게. 예) 이달의 회원 인터뷰 유튜브, 회원 강사의 유튜브 제작 강좌, 참여 회원 쇼츠 영상 만들기 등
- ❸ 회원 참여 소재와 방식 체계적 조사, 회원 해설가와 함께하는 미술관 탐방 등 소확행 회원모임 확대, 자율적 운영 등

6 연대 활동

이슬람사원문제평화적해결시민대책위

- [기자회견] 이슬람사원 문제 평화적 해결 촉구(5.26)
- [북구경찰서장 면담] 공사 방해 행위에 대한 경찰의 소극적 태도 지적 등(8.19)
- [성명] 인권침해 및 사실왜곡 북구청장 규탄(9.16)
- [성명] 공사중지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승소, 환영(9.20)
- [강연회] 난민, 외국인 등 인권문제 초청강연회(9.20)
- [성명] 이슬람 사원 문제, 홍준표 시장의 전향적 노력 촉구(12.23/독자)
- [진정] 유엔에 서한 발송(1월초), 경북대 다양성위원회에 서한 발송(1월초)
- [집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혐오차별 반대와 사원 건립 지지 집중행동(1.18)
- [수상] 희년공동체‘선한 사마리아인상’ 수상(1.18)
- [공문] 돼지머리 사건 등 국가인권위 입장 표명 요청(1.30)

[평가 및 과제]

- ❶ 법원, 인권위 등 법적, 행정적 쟁송에서는 모두 승소하여 건물을 지어지고 있으나, 북구청과 대구시의 무책임으로 인해 갈등의 해결방안은 찾지 못한 채 사원측과 주민측의 갈등이 격화되고, 진보와 보수의 이념대결의 현장으로 부각되고 있음

- ② 전국적, 국제적 이슈가 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까지 내려오고, 복구청이 뒤늦게 중재를 시도했으나 사원 이전은 사원측이, 주택매입은 주민측이 거부하고 있는 상황
- ③ 대책위원회 내부에서도, 물론 두가지 문제의식이 섞여 있으나 1)지역사회의 갈등 문제로써 사회적 해결방안을 폭넓게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과 2)인권 문제로써 혐오, 차별에 반대하며 사원건립을 지지, 완수해야 한다는 입장의 차이가 있는 상황
- ④ 대구참여연대가 능동적으로 역할하기 어려운 상황. 과도한 책임과 역할을 자임하지 말고, 연대활동과 독자적 역할을 균형있게 할 필요가 있음.

그 외

①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논평] 민주당, 정치개혁 약속 실천에 옮겨야(3.16)
- [성명] 자치경찰시대 역행하는 행안부의 경찰통제 중단 촉구(6.23)
- [성명] 윤석열정부, 경찰 장악 시도 당장 중단하라(7.26)
- [하계워크숍] 8/24~ 26
- [성명] 시민사회 활성화 규정 폐지령안 논의 즉각 중단하라(9.7)
- [성명] 국가 책임 이태원 참사, 원인 규명하고 책임 물어야(11.3)
- [기자회견]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 촉구(1.10/전국 공동)
- [기자회견] 노조법 2, 3조 즉각 개정, 전국 선언 공동참여(2.7/전국 공동)
- 이태원참사전국대책위 일괄 참여
- 정치개혁공동행동 일괄 참여
- 지방의원, 공무원 겸직 등 이해충돌 실태조사 진행 중
- [동계워크숍] 2. 9~ 10

② 정치개혁 연대활동

- [기자회견] 거대양당,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개혁 촉구(3.29)
- [기자회견] 지방선거 선거제 개혁과 다당제 정치개혁 촉구(4.4/전국)
- [성명] 시의회, 4인 선거구 확정안 의결 촉구(4.20)
- [기자회견] 시의회, 4인 선거구 확정안 의결 촉구, 의회 방청(4.27)

③ 생태환경 연대활동

- [기자회견] 윤석열 후보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 폐기 선언 규탄(2.22)
- [기자회견] 낙동강 농산물 독성 물질 검출, 우리 아이들 급식이 위험하다(3.30)
- [기자회견] 낙동강 녹조문제 규탄, 수질개선 방안 국정과제 채택 촉구(4.4)
- [기자회견] 아이들 급식안전 내팽개친 강은희 대구교육감 규탄!
- [공동성명] 대구 남구청은 앞산 모노레일 사업 전면 백지화하라!!
- [공동성명] 낙동강 녹조 농산물 문제 안전한 급식 외면 강은희후보 비판(5.23)
- [기자회견] 수성구청의 환경파괴 산책로 공사 중단, 원점 재검토 촉구(7.28)
- [보도자료] 개발축소 수성구청과 대책위 최종합의 환영(9.14)

④ 평화인권 연대활동

- [공동성명]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단 평화적 해결 촉구 공동성명(3.7)
- [기자회견]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촉구
- [공동강좌]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강좌(생명평화아시아 공동/ 5/9, 16, 23)

⑤ 역사기념일, 연례집회 등

- 3.8 여성대회
- 4.16 세월호 참사 8주기 추모식
- 5.18 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
- 6.10 민주화운동 35주년 기념식
- 8.15 평화대회
- 10월 항쟁 76주년 기념식
- 퀴어 축제
- 이태원참사 추모 공동 집회, 기자회견(11.23, 12.9, 12.16)

⑥ 기타

- [성명] 권영진 대구시장 생계위협에 내몰린 패션연과 직원들을 방치하지 말라
- [성명] 패션연 전기요금 납부 막아 4월 11일 단전 초래한 대구시 규탄!(4.7)
- [기자회견] 울리자 최저임금, 줄이자 사회불평등, 대구최저임금연대 발족(6.8)
- [성명] 수도권 규제완화(반도체 인력양성 수도권대학 정원 확대) 규탄(6.13)
- [성명] 신속한 건물경매로 한국패션연구원 직원 생존권 보장 촉구(7.19)
- [기자회견] 윤석열정부 경찰 장악 시도 규탄, 행안부 장관 탄핵 촉구(7.28/지역)
- [기자회견] 영남대 총장, 이승렬 전 교수회 의장 등 징계 시민대책위(8.27)

시민의 힘으로 대구를 바꿉시다!

- [성명]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노동자 임금 체불 등 생존권 대책 촉구(9.7)
- [성명] '2038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안' 재고 촉구(10.17/대구-광주)
- [성명] 홍준표 시장 특별고문 철회 촉구(11.10/지역)
- [성명] 산업부의 패션연 경매방해 규탄, 경매진행 산업부 장관 승인 촉구(12.21)

[평가와 과제]

- ❶ 이슈의 경중, 우리 단체 활동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주도, 적극 참여, 단순 연명 등 참여 여부와 수위를 적절히 하고 있음
- ❷ 정치개혁, 지역균형발전 의제 등은 좀 더 능동적으로 주도할 필요가 있으나 지역 시민사회 연대질서 내 위치의 문제, 사무처 역력의 문제 등이 있음.
- ❸ 관행적 관계와 연대를 지양하되 분명하게 역할 해야 할 의제, 이슈에 대해서는 책임있게 하고, 연대활동에서 사무처 외 공동대표 등 임원들의 역할을 높여야 함

2022 결산보고 및 평가

1. 2022년 재정 현황

① 자산

(단위: 원)

과목	구분	2021년(12.31)	2022년(12.31)	전년대비증감액	전년대비증감율%
현금	현금및현금등가물	-	-	-	-
	현금(보통예금)	34,434,718	19,807,792	-14,626,926	
	현금합계	34,434,718	19,807,792	-14,626,926	-42.5%
예금	보통예금	-	-	-	
	나눔과희망기금	26	26	-	
	퇴직적립금	6,805	6,805	-	
	튼튼기금	38	38	-	
	예금합계	6,869	6,869	-	0
보증금	기타유형자산(보증금)	-	-	-	
	전세보증금(대구)	30,000,000	30,000,000	-	
	보증금합계	30,000,000	30,000,000	-	0
자 산 총 계		64,441,587	49,814,661	-14,626,926	-22.7%

② 부채 및 순자산

(단위: 원)

과목	구분	2021년(12.31)	2022년(12.31)	전년대비증감액	전년대비증감율%
미지급금	예수금	-	96,840	96,840	
	미지급급여	-	-	-	
	미지급비용	-	123,860	123,860	
	미지급퇴직금	24,749,385	35,513,935	10,764,550	43.5%
	미지급금 소계	24,749,385	35,734,635	10,985,250	44.4%
차입금	단기차입금	-	-	-	
	장기차입금	15,607,244	8,962,980	-6,644,264	-42.6
	차입금 소계	15,607,244	8,962,980	-6,644,264	-42.6%
	퇴직급여충당금	-	-	-	
	사업가수금	-	-	-	
[부 채 합 계]		40,356,629	44,697,615	4,340,983	10.8%
[순 자 산]		24,084,958	5,117,046	-18,967,912	-78.8%
[순자산 증감]			-18,967,912		
부 채 와 순 자 산 총 계		64,441,587	49,814,661	-14,626,926	-22.7%

2. 수입

(단위: 원)

항 목	2021(12.31)	2022(12.31)	비율(%)	전년대비 증감액	전년대비 증감율(%)
회비수입					
지로회비	-	-	-	-	-
일반자동이체회비	10,751,000	9,011,000	5.6	(1,740,000)	(16.2)
CMS회비	82,832,000	83,805,000	51.9	973,000	1.2
연회비	250,000	200,000	0.1	50,000	(20.0)
평생회비	-	-			
소 계	93,833,000	93,016,000	57.6	(817,000)	(0.9)
후원금 수입					
일반후원금	4,120,000	7,870,000	4.9	3,750,000	91.0
사업후원금	-	-			
특별기금후원금	-	-			
후원행사	42,720,000	30,280,000	18.89	(12,440,000)	(29.1)
소 계	46,840,000	38,150,000	23.6	(8,690,000)	(18.6)
기타수입					
광고수입	7,000,000	8,000,000	5.0	1,000,000	14.3
이자수입	2,703	1,612		(1,091)	(40.4)
기타수입	18,680,600	19,093,900	11.8	413,300	2.2
소 계	25,683,303	27,095,512	16.89	1,412,209	5.5
사업수입					
일반사업수입	8,800,000	1,425,010	0.8	(7,374,990)	(83.8)
명절수익사업수익	-	258,000	0.2	258,000	
일상수익사업수입	-	-			
기타사업수입	4,087,000	-		(4,087,000)	
하계캠프수입	-	1,460,000	0.9	1,460,000	
소 계	12,887,000	3,143,010	1.9	(9,743,990)	(75.6)
기타 잡수입					
잡이익	-	-			
소 계	-	-			
총 계	179,243,303	161,404,522	100%	(17,838,781)	(10.0)

3. 지출

(단위: 원)

항	목	2021(12.31)	2022(12.31)	비율(%)	전년대비 증감액	전년대비 증감률(%)
인건비	급여	79,115,891	96,539,875	53.5	17,423,984	22.0
	사회보험료	13,619,580	19,276,290	10.7	5,656,710	41.5
	상여금	4,000,000	4,400,000	2.4	400,000	10.0
	퇴직급여	2,467,643	10,764,550	6.0	8,296,907	336.2
	소 계	99,203,114	130,980,715	72.6	31,777,601	32.0
일반 관리비	지급이자	107,153	125,667	0.1	18,515	17.3
	사무실임차료	10,560,000	9,600,000	5.3	(960,000)	(9.1)
	정보통신비	2,118,331	1,632,278	0.9	(486,053)	(22.9)
	사무용품비	6,138,895	534,460	0.3	(5,604,435)	(91.3)
	소모품비	675,120	287,470	0.2	(387,650)	(57.4)
	도서구입비	624,000	716,000	0.4	92,000	14.7
	지급수수료	970,150	930,690	0.5	(39,460)	(4.1)
	수도광열비	1,179,860	1,264,920	0.7	85,060	7.2
	기타경비,세금	489,090	1,178,780	0.7	689,690	141.0
소 계	22,862,599	16,270,266	9.0	(6,592,333)	(28.8)	
홍보비	소식지발송비	2,250,740	1,942,760	1.1	(307,980)	(13.7)
	소식지제작비	5,175,000	4,450,000	2.5	(725,000)	(14.0)
	기타홍보비	57,736	179,991	0.1	122,255	211.7
	소 계	7,483,476	6,572,751	3.6	(910,725)	(12.2)
사업 집행비	연대사업	9,216,070	2,805,000	1.6	(6,411,070)	(69.6)
	일반사업추진	3,382,750	6,663,597	3.7	3,280,847	97.0
	사업출장비	87,000	-	-	(87,000)	-
	회원조직사업비	4,019,930	8,279,275	4.6	4,259,345	106.0
	후원행사비용	12,618,950	5,770,820	3.2	(6,848,130)	(54.3)
	기타사업집행비	4,399,233	30,000	0.0	(4,369,233)	(99.3)
소 계	33,723,933	23,548,692	13.1	(10,175,241)	(30.2)	
지원경비	동구주민회부	3,000,000	3,000,000	1.7	0	0.0
	소 계	3,000,000	3,000,000	1.7	0	0.0
기타잡비	잡손실	-	10	0.0	10	0.0
	소 계	-	10	0.0	10	0.0
지출 총계		166,273,122	180,372,434	100	14,099,312	8.5
수입지출차액분		12,970,181	-18,967,912			
총 계		179,243,303	161,404,522		(17,838,781)	(10.0)

4. 부속 설명

① 자산 및 부채

- 예금잔액: 19,807,792원 (2022. 12.31. 기준)
- 미지급비용: 12월 전기요금미납
- 미지급퇴직금: 퇴직급여충당금(실제로 충당할 수 없어 미지급으로 처리함)
- 장기차입금: 2021년 5월 2천만원 대출, 3년 원리금 균등상환: 원리금 일부 상환
(현재 잔여 차입금은 8,962,980원.)
- 부채는 퇴직급여미지급처리에 따른 44.4% 증가
- 순자산은 전년대비 -18,967,912원 감소

② 수입

- 회비 57.6%, 후원금 23.6% 기타 18%
- 자동이체 납부회원 일부 cms로 이관
- 일반후원금: 홈커밍데이 책 제작비 필자 분담 등(김병호, 이종득 외)
- 후원행사: 전년대비 총액 감소
기부금법 개정, 법인·기업의 기부금영수증 발행 어려워 기업후원금 감소
후원행사 지출 비용을 줄여 순수입은 비슷함.
- 광고수입: 대구은행 회지 1년(6회) 광고비임.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어려워 전년 후원금의 일부가 광고비로 전환됨.
- 기타수입: 청년활동가 급여 지원, 감사원 포상금, 음반 판매 등
- 일반사업수입
이태원참사 국가책임 촉구 현수막 걸기 참여비
전년대비 감소(전년 지방자치 30주년 행사 단체 분담금, 미안마 민주화 촉구 언론광고 참여비 포함)
- 기타사업수입: 전년대비 감소 -전년도 공모사업(평생진흥원)지원비에 의한 차이

③ 지출

- 인건비 72.6%, 일반관리비 9%, 홍보비 3.6%, 사업비 13.1%
- 인건비
급여, 사회보험료: 전년도 보다 1인 인건비 비용이 늘어남.
퇴직급여는 미적립으로 퇴직급여 발생 후 대차대조표상 미지급금 처리함
(강금수 22.1~12 / 조영태 21.2~22.12 / 김선희 21.9~22.12)
- 일반관리비
사무실 임차료: 2021년 12월 재계약에 따라 보증금 상향 후 월세 줄임
사무용품비: 전년도 대비 감소. (전년도 it지원사업 지원비용 지출)
기타경비: 공공병원설립 촉구 현수막 걸림 사고 합의금(1,000,000원)

- 홍보비
소식지 (지방선거로 인한) 1회분 온라인 발행으로 전년대비 소액감소
- 사업집행비
연대사업비: 경실련 공동 관광뷰로 불법 위탁 문제 패소비용(1,000,000원)
전년대비 감소(전년지방자치 30주년행사 진행 비용차이)
일반사업추진비: 정책포럼, 홈커밍데이 북토크 책 제작비, 현수막 시민행동
회원조직사업비: 문자 충전, 홈페이지와 뉴스레터 이용료, 하계캠프, 총회
후원행사비용: 전년대비 감소 (답례품 제작비 줄임)
기타사업집행비: 전년대비 감소(전년도 공모사업 '배움이락' 사업비)

[총괄 평가]

- ❶ 총수입은 전년 대비 14% 감소, 지출은 8.5% 증가
- ❷ 회비는 큰 폭의 변화는 없었고 약 0.9% 감소(가입:34명, 해지 42건)
월평균 1~2명 신규가입, 회원확장 캠페인으로 20여명 가입했으나
회비 중단 회원이 늘어나 전체적으로 약간 감소
- ❸ 사업수입이 전년 대비 75% 감소. 공모사업 미참여 등 요인
- ❹ 월평균 300여만원의 적자 발생. 8~9월 활동가 급여 일부 연체로 단기 대 출 후
후원금 모금을 통해 바로 상환
- ❺ 회비수입은 전반적으로 큰 폭의 변화 없이 현상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공모사업 참여, 프로젝트 사업 펀드 조성 등 사업비 확충
및 꼼꼼한 회원관리, 새로운 모금 방식 및 후원처 다변화 등 재정확충 노력 필요

감사보고

사업감사 보고

회계감사 보고

사업감사보고서

대구참여연대 임원 및 회원 귀중

본 감사는 대구참여연대의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자료를 감사하였습니다. 본 감사는 독립적인 입장에서 동 사업보고 자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적정성의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합니다. 이를 위하여 본 감사는 전반사항에 대해서는 대구참여연대의 정관을 준수하고 사업보고자료에 대해서는 상식적인 업무감사의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본 감사의 의견으로는 사업보고자료는 대구참여연대의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수행된 사업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 경기침체, 대통령선거, 지방선거의 패배, 회원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대구참여연대의 지속적인 활동이 있었습니다.

사업보고에 적시된 개개 사업이나 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과제 등이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2023년도 향후 사업 또는 활동계획에 잘 반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사업이나 활동계획 등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회원과 임원, 사무처가 조화롭게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23. 2. .

사업감사 이승익



회계감사 보고서

대구참여연대 임원 및 회원 귀중

본 감사는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된 대구참여연대의 17기 사업연도의 재무보고자료를 감사하였습니다.

본 감사는 독립적인 입장에서 동 재무보고자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적정성의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합니다. 이를 위하여 본 감사는 전반사항에 대해서는 대구참여연대의 정관을 준수하였으며 재무보고자료에 대해서는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본 감사의 의견으로는 별첨 재무보고자료는 대구참여연대의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재무현황 및 수지내역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 외의 내용으로, 대구참여연대는 2022년 회계기간 전년대비 수입지출의 큰변화는 없었습니다. 회비나 기부금 모금도 중요하지만 대구참여연대의 고유목적 사업을 위해 공모사업 등을 통한 사업수입을 확대해보는 방향도 고민해볼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년 2월 13일

회계감사 박 선 형



2023년 임원 선출안

2023년 임원 선출안

- ① 자문위원회: 임기 중/ 추가 선출안 없음

- ② 공동대표
 - 임기 중: 박경로, 정혜숙
 - 추천안: 엄창욱(직전 대표), 이두옥(직전 대표)

- ③ 운영위원장: 임기 중

- ④ 운영위원
 - 임기 중: 박종률, 하만호 위원 사임
 - 추천안: 문창식(전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등 역임)
도경화(전 운영위원 등 역임)
?

2023년 활동계획 및 예산안

활동방향

주력사업

회원·조직 활동

연대활동

예산안

활동방향

- 하나, 윤석열 정부와 홍준표 시정의 과거 회귀와 실정에 맞서는 정책활동과 시민의 직접행동 강화

- 둘, 변화된 조건에 맞는 대구변화 정책의제의 실행과제와 실천방식 구체화, 정책대안의 제도화 추진

- 셋, 주력과제 중심으로 활동의 집중력 제고, 당사자 연대 강화로 시정개혁과 시민사회 활성화 견인

- 넷, 관행을 벗어나 다양한 주체와 방식으로 시민운동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도전하는 실험

- 다섯, 회원(임원)의 관심사·전문성·생활 여건에 맞는 활동 방식으로 참여 확대, 조직 활력 제고

주력사업 1. 윤석열 정부·홍준표 시정의 실정에 맞서는 시민감사·시민행동

과제/내용

① 윤석열 정부

-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구의 권한 남용
- 수도권 규제 완화, 지방균형발전 후퇴에 대한 대응
- 노동 및 시민사회 탄압에 대한 대응
- 굴중외교, 남북대결 정책에 대한 대응 등

② 홍준표 시정

- 공공기관 및 위원회 등 일방적 통폐합으로 파생되는 문제
- 무리한 채무감축에 따른 사회 정책 및 예산 축소 등의 문제
- 대중교통 무임승차 70세 이상 상향 등 민생 외면, 직권남용 문제
- 금호강 르네상스 등 토목개발 사업, 시정 기업화 문제
- 대구시 유튜브 사유화 등 정치 욕망, 시정 사유화 문제 등

수단/방식

① 윤석열 정부

- 회원 선언, 시민 선언: 가) 시민대자보 '시일야방성' 시리즈
- 거리 현수막, 언론 광고
- 릴레이 1인시위, 집단 1인시위
- 연대 성명, 연대 집회 등

② 홍준표 시정

- 시 홈페이지 및 홍준표 유튜브 등 일상적 모니터
- '홍준표 시민감사단' 총원 및 활동 체계화
- 시민 연명 감사청구 및 단체 공익 감사청구 등 행정적 대응
- 고발, 소송 등 법적 대응
- 1인시위, 기자회견, 시민청원, 거리캠페인, 시민광고 등 시민행동

- 시민 원고, 시민 청원인, 시민 연명자 모집
- 공익펀드 모금, 참여자 공동행동, 회원확장 도모 등

[홍준표 시민감시단]

- 회원 및 시민 누구나, 20명 이상 모집
- 모니터 방법, 시정 및 예산 기초 교육 등
- 각자 관심사별 시 홈페이지 등 모니터와 제보(비대면 활동)
- 자료 분석, 학습 및 시민행동(대면 활동)

주력사업 2. 대구변화 정책의제 제도화 활동

과제/내용

- 돌봄, 공공의료 등 사회정책 감시와 정책과제 제도화
- 대구시 노동·민생정책 감시와 정책과제 제도화
- 대구시 청년정책 감시와 정책과제 제도화
- 주민참여, 주민자치 관련 시책 감시와 정책 제안

수단/방식

① 대학·단체·지방의원 협동 조례연구(예시)

- 사회학과, 청년유니온 등: 청년조례 비교 연구
- 복지학과, 사회복지사협회 등: 사회복지조례 비교 연구
- 지방변호사회, 인권단체 등: 인권조례 비교 연구
- 2.18 안전재단, 안실련 등: 안전조례 비교 연구
- 행정학과, 마을단체네트워크 등: 주민참여, 주민자치조례 비교 연구
- 경제학과, 민주노총 등: 경제민주화, 노동조례 비교연구 등
- 1/4분기 중 기획 구체화
2/4분기 중 공식 제안 및 협동연구팀 구성
3/4분기 중 조사연구 → 워크숍 → 보고서 작성

② ‘좋은조례 만들기운동’ 시즌2(3/4~ 4/4분기)

- 과제별 연구결과 종합 ‘알면 힘이 되는 좋은조례 2’ 출판
- 정책제안 토론회 → 시민청원 또는 의원발의 → 공청회 등 공론화 → 조례 제·개정 및 예산 편성

③ 대구시 노동·민생 정책 감시 및 제도화 활동

- 노동정책기본계획 등 노동정책, 대구행복페이 등 민생정책
- 정책 및 이행 과정(예산, 제도, 조직 등) 감시 및 정책제안, 제도화 활동
- 민주노총+청년유니온+노동뉴스 등

주력사업 3. 지방의회 의정감사·의회혁신 활동

과제/내용

- 의회 주요의안 모니터, 평가 체계화
- 의원윤리, 이해충돌, 의정참여, 국외연수 등 감시
- 의회혁신, 의정참여 제도개혁
 - 입법영향평가조례 등 조례의 내용과 권위 강화
 - 이해충돌 방지, 비위의원 징계 등 의원윤리 제도 강화
 - 해외연수 예산낭비 방지, 정책연수 강화
 - 의정모니터단 설치, 의회 시민여론조사 등 시민참여제도 등

수단/방식

① 의정활동평가 체계화

- 지방의원 겸직실태 등 이해충돌 실태조사, 발표
- 예산 없는 조례 조사, 조례위반 행위 감시 등 조례 무력화 방지 활동
- 입법활동, 감사활동, 시민청원처리 등 정성평가 지표 개발
- 단체+시민+전문가 등 평가의 공신력과 신뢰도 제고
- 일상 감시 + 정기 평가 병행

② 참여연대+대학 등 의정활동 모니터

- 대학 정외과, 행정학과 등 협력사업으로 추진
- 5개 상임위 각 3~ 5명, 총 20여명/ 시의회 후반기(23.7~ 12)
- 온라인 방청, 현장 방청/ 평가 워크샵, 리포터 쓰기
- 평가보고서 발표, 정책토론회, 입법정책 권고 등
- 우수(비우수)의원, 우수정책, 우수활동
- 수료증, 봉사 시간, 학점 연계 등 모색

③ 의회혁신 및 의정참여 활성화 조례 제·개정

- 기초 및 광역, 지방의원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광역, 기초 불문 협력의원 있는 곳부터 추진, 제도화 경로 다양화

회원참여·조직강화 활동

Ⅰ 회원참여·시민소통 체계화

① 새 회원규범 마련

- 권력감시와 참여민주주의, 시민정치와 직접민주주의, 풀뿌리자치와 지역공동체 등의 가치와 방향
- 시민참여, 시민감시, 시민연대, 시민행동 등 회원 행동 규범 제정: 26차 정기총회

② 회원의견조사 체계화

- 한국사회 및 지역사회의 주요쟁점에 대한 의견조사(이슈별, 주기별)
- 년 1회 종합 의견조사: 활동인지, 활동평가, 활동방향, 관심사와 참여방식 등
- 회원 특성(지역, 연령, 회원가입 기간 등)에 따른 체계적 분석과 반영

③ 회원 불런티어 시스템 구축

- 업무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회원 불런티어에게 아웃소싱
- 파트타임, 반상근 등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활동
- 재정 범위 내 활동비 등 적절한 보상

④ 찾아가는 회원투어:

- 지역순회 회원 만남의 날
- 회원가게 투어(인터뷰, 가게 소개) 및 회원직장 투어(회원 많은 사무실, 대학 등)

⑤ 회원동아리 활성화:

- 걷기모임/ 사회봉사동아리/ 문화예술탐방모임

⑥ 유튜브 대구참여연대TV 운영

- 주요 활동을 뉴스로 전파: 회원(활동가) 앵커, 회원 전문가 인터뷰 등
- 단체 홍보, 시민참여자 모집, 공익펀드 모금 등
- 기획, 편집 등 인력 확보

② 조직체계와 운영방식의 재편·강화

① 운영위원회와 집행위원회 등 재편

- 현재의 조직 규모와 회원 구성, 변화하고 있는 참여 방식 등을 고려
- 운영위원회와 집행위원회의 통합·일원화 등
- 다각도 모색 후 26차 총회에서 정관개정 등 실사구시적 조직 재편

② 조직 운영 및 역할 방식의 재편

- 온라인 비대면회의의 효과적 병행 등 대면회의 참석 부담, 실무 부담 완화
- 각급 기구 위원의 관심사, 전문성 등을 고려한 위원별 과제 담당제 도입 등

③ 가)청년위원회 신설(2023~ 24)

- 청년모임 신설(2023): 놀이와 공부, 사회참여 등(※선배 응원단)
- 청년위원회로 발전(2024): 문화활동, 의제활동, 집행 및 운영기구 참여

④ 정책·법률 지원기구 신설

- 도시·경제 분야 정책연구팀
- 법률지원팀

⑤ 각급 조직기구 내실화

- 자문위원회+공동대표단: 년 3회
- 공동대표단: 격월 운영위원회 참석/ 기자회견 등 주요 대외활동 참석
-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률 제고, 회원모임 대표 운영위원회 참석, 운영방식 효율화
- 집행위원회: 집행위원장 선출, 정책분야 집행위원 보강
- 좋은정책네트워크: 위원 충원, 위원별 과제 담당제
- 참여와소통위원회: 회지 등 회원 매체 운영, 유튜브 등 시민 미디어 운영진 보강
- 사무처: 현행 유지 ※ 비상근 회원 활동가 시스템 모색

③ 회원행사/재정관리 내실화

① 홈커밍데이(4월): 회원장터, 활동역사 전시회 등

② 하계회원캠프(7월)

③ 후원금 모금 및 회원확장 캠페인(11~ 12월)

시민의 힘으로 대구를 바꿉시다!

- ④ 설맞이 재정사업(1월)
- ⑤ 2023 회원의견조사 및 정기총회(2월)
- ⑥ 납부 회원 감사 답례, 미납 회원 성실 관리
- ⑦ 해피빈 모금, 년회비, 평생회비, 어린이회원, 청소년회원, 유산기부 등

④ 회원포럼/시민강좌 등 시민교육

- ① 회원포럼: 초청강연, 정책포럼 등(분기별)
- ② 2023 민주시민학교(10~ 11월): 직접민주주의, 지역정당, 시민정치 등

⑤ 시민운동 실험실

- 시민감시형 활동+시민창의형 활동의 연결, 광역 정치활동+ 풀뿌리 자치활동의 연결, 직접민주주의 활동+비정당 시민정치 활동의 연결, 청년의 지역 정착과 사회참여 활동의 연결 등
- 회원(시민), 시민 활동가, 연관단체 협동
 - 내부: 동구주민회, 청년모임 등
 - 외부: 마을, 공익, 사회혁신, 직접민주, 시민정치 그룹 등
- 제안자 중심으로 중소규모 실험팀 구성
- 년 2개 내외 프로젝트 실험
- 공익재단 공모사업 활용 등

연대활동

① 선거제도 등 정치개혁 활동

- 비례의석 확대,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역정당 허용 등
- 정책포럼, 국회청원 등 공론화
- 온라인 캠페인, 거리 현수막, 시민선언 등
- 단체, 정당 연대 기자회견 등
- 22대 총선(24.4) 대응 준비
 - 정치개혁, 사회개혁, 지역혁신 등 정책 마련
 -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정치 활동 프로그램 준비 등

② 새로운 공공병원 설립 대구시민행동

- 대구시 공공의료 정책에 대한 지속적 감시 및 비판 활동
 - 제2 대구의료원 설립 필요성 지속 제기
 - 대구의료원의 실질적 강화, 공공성 강화를 위한 모니터, 비판, 제안 등
- 공공의료 현장, 당사자들의 요구를 정책 및 실천과제로 구체화
 - 노동조합, 의료 취약계층 등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 중심의 활동
- 공공의료 활동 및 정책 네트워크의 확장과 연대운동의 저변 확대
 - 제2 의료원 설립 등에 우호적 정치인 등 인사, 그룹, 단체 등 네트워크 확장
 - 마을방송국, 풀뿌리 조직들과의 네트워크, 대중적 운동 기반 마련

③ 이슬람사원문제평화적해결시민대책위

- 북구청, 대구시, 정부 등에 문제해결 촉구
- 행정기관 및 지역사회 각계의 사회적 논의를 통한 평화적 해결 도모 등

④ 사회적참사 문제해결 공동활동

- 2.18 지하철참사 21주기
- 4.16 세월호참사 9주기
- 10.29 이태원참사 1주기

⑤ 각종 연대행사

- 3.8 여성대회
- 4.9 인혁열사 등 열사·희생자 추모행사
- 5.1 노동절
- 5.18 민주화운동
- 6.10 민주화운동
- 8.15 평화행동
- 10월 항쟁
- 퀴어 축제
- 장애인차별철폐 주간 행사
- 인권 주간 등

2023년 예산안

1. 수입

(단위:원)

항	목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안	비율
회비수입	일반자동이체회비	9,011,000	9,500,000	6.4%
	CMS회비	83,805,000	85,000,000	46.3%
	연회비	200,000	300,000	0.3%
	평생회비	-	-	-
	소 계	93,016,000	94,800,000	52.9%
후원금수입	일반후원금	7,870,000	8,000,000	2.8%
	사업후원금			-
	특별기금후원금			-
	후원행사	30,280,000	36,000,000	25.1%
	소 계	38,150,000	44,000,000	27.9%
기타수입	광고수입	8,000,000	8,000,000	4.1%
	이자수입	1,612	2,000	-
	기타수입	19,093,900	4,500,000	11.0%
	소 계	27,095,512	12,502,000	15.2%
사업수입	일반사업수입	1,425,010	3,400,000	1.1%
	명절수익사업수익	258,000	1,000,000	1.2%
	일상수익사업수입			-
	기타사업수입		2,000,000	1.7%
	하계캠프수입	1,460,000	2,000,000	-
소 계	3,143,010	8,400,000	4.0%	
기타잡수입	잡이익		298,000	-
	소 계		298,000	-
총	계	161,404,522	160,000,000	100.0%

2. 지출

(단위:원)

항	목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안	비율(%)
인건비	급여	96,539,875	90,400,000	56.5
	사회보험료	19,276,290	9,300,000	5.8
	상여금	4,400,000	3,600,000	2.3
	퇴직급여	10,764,550	7,000,000	4.4
	소 계	130,980,715	110,300,000	68.9
일반관리비	지급이자	125,667	150,000	0.1
	사무실임차료	9,600,000	9,600,000	6.0
	정보통신비	1,632,278	1,700,000	1.1
	사무용품비	534,460	500,000	0.3
	소모품비	287,470	250,000	0.2
	도서구입비	716,000	500,000	0.3
	지급수수료	930,690	950,000	0.6
	수도광열비	1,264,920	1,300,000	0.8
	기타경비,세금	1,178,780	500,000	0.3
	소 계	16,270,266	15,450,000	9.7
홍보비	소식지발송비	1,942,760	1,950,000	1.2
	소식지제작비	4,450,000	4,500,000	2.8
	기타홍보비	179,991	200,000	0.1
	소 계	6,572,751	6,650,000	4.2
사업집행비	연대사업비	2,805,000	1,500,000	0.9
	일반사업추진비	6,663,597	7,000,000	4.4
	사업출장비			
	회원조직사업비	8,279,275	8,000,000	5.0
	후원행사비용	5,770,820	8,000,000	5.0
	기타사업집행비	30,000		0.0
소 계	23,548,692	24,500,000	15.3	
지원경비	동구주민회교부	3,000,000	3,000,000	1.9
	소 계	3,000,000	3,000,000	1.9
기타잡비	잡손실	10		
	예비비		100,000	0.1
	소 계	10	100,000	
(수입지출차액)		(18,967,912)		
총	계	161,404,522	160,000,000	100.0%

3. 부속 설명

① 수입

- 회비: 회원확대 및 회비증액 등 고려 소액 증액 편성
- 후원금
대면 행사, 모금 다변화로 전년 대비 600백여만원 증액 편성
- 광고수입 및 기타수입
광고수입: 전년 수준 편성
기타수입: 인턴활동가 지원사업 중단으로 전년 대비 감액
해피빈 모금 등 반영
- 기타사업수입: 홈커밍 데이 회원 장터 수입 반영

② 지출

- 인건비
급여: 최저임금 증가분 반영. 인턴활동가 지원사업 종료에 따른 감액
* 2022년까지 급여는 세후 실지금액으로 설정, 본인 부담 4대보험료를 사회보험료 계정으로 설정, 사업자 부담분과 합산 처리.
* 2023년부터 세전 금액으로 정리, 사회보험료는 사업자 부담분만 반영
퇴직급여(충당금): 3인 1년 기준 예상액
- 일반관리비: 전년 수준으로 편성
- 정보통신비: 전화 인터넷 금융결제원 cms 이용료 등
- 지급수수료: cms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 홍보비: 소식지 제작·발송비, 페이스북 행사 홍보비
- 사업집행비
일반사업추진비: 정책포럼, 토론회, 홈커밍데이 등
회원조직사업추진비: 문자 발송, 홈페이지 및 뉴스레터발송, 총회, 하계캠프 등
- 후원행사비용: 대면 행사 진행에 따른 비용 증액

③ 총괄

- 3년간의 코로나 시대 종식을 고려, 대면 행사비, 시민운동 실험실 등 사업비를 증액 편성
- 상시적 회원가입 권유를 통해 더디지만 꾸준한 회비 수입 증액 도모
- 고유 목적사업 수행 시 공모사업 활용 등 사업비 충당 방안 모색

부 록

언론에 비친 대구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정관

대구참여연대가

2022 언론에 비친 대구참여연대

2022.01.08	연합뉴스	[현장in] 출구 안 보이는 대구 이슬람사원 건축 '갈등'
2022.01.11	내일신문	대구 달성군, 비슬산 케이블카 '포기'
2022.01.12	뉴스민	'새로운 공공병원 설립 대구시민행동' 발족 "제2의료원 불가역적 과제로"
2022.01.12	KBS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시민사회 연합체 발족
2022.01.19	대구MBC	대구은행에 무슨 일이?
2022.01.20	뉴스민	새로운 공공병원 설립 대구시민행동 본격 활동
2022.01.20	노컷뉴스	대구 시민사회단체, '공공병원 설립 촉구 대구시민행동' 발족
2022.01.20	뉴시스	지역 시민사회단체, '공공병원 설립 대구시민행동' 발족
2022.01.20	대구MBC	"새로운 공공병원 설립" 대구시민행동 발족
2022.01.20	오마이뉴스	대구 제2의료원 설립 위한 '대구시민행동' 발족
2022.01.20	시사포커스	대구시민단체, '새로운 공공병원 설립 대구시민행동' 발족
2022.01.20	경북매일신문	대구 시민단체 "새 공공병원 설립 나서야"
2022.01.21	경북일보	"새로운 공공병원 설립 '대구시민행동' 발족"
2022.01.29	일요신문	대구참여연대 "김재원 무소속 출마...국민 대표할 자격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2022.02.09	뉴시스	대구시 수도요금 인상에 시민단체 '부적절'
2022.02.09	노컷뉴스	대구참여연대 "시 수도 요금 인상 추진, 시기상조"
2022.02.09	매일신문	대구시 수도요금 인상 방침에...시민단체 "인상 적절치 않아"
2022.02.09	KBS	코로나19 속 대구 수도요금 인상 부적절"
2022.02.09	경북매일신문	대구 수도요금 인상 시기상조"
2022.02.09	경북일보	대구참여연대 "코로나19를 민생위기 키지는데 수도요금 인상은 서민경제 악화"
2022.02.09	위키트리	대구시의 상수도 요금 인상 임박... "하필 이 시기에" 비판 여론 비등
2022.02.10	TBC대구방송	TBC)대구 상수도요금 6년만에 인상 추진
2022.02.10	대구MBC	대구시 수도요금 인상 추진..."시기상조" 비판 나와
2022.02.10	브레이크뉴스	대구참여연대,"대구시의 수도요금 인상 부적절"
2022.02.10	브레이크뉴스	대구시 수도 요금 인상안, 상임위 통과...17일 본회의 의결 예정
2022.02.17	더팩트	이슬람 사원 공사 중지 1년 '대구시가 책임져라'
2022.02.17	뉴시스	"북구 이슬람사원 건립 갈등, 대구시가 결자해지해야"
2022.02.17	평화뉴스	대구 이슬람사원 공사중단 1년...주민 반대로 장비 반입 또 무산
2022.02.17	오마이뉴스	"대구 이슬람사원 공사 중단 1년, 대구시가 적극 개입해야"
2022.02.17	KBS	코로나 속 대구 수도요금 인상...서민부담 가중 반발
2022.02.17	대구신문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 1년..."시가 나서라"
2022.02.19	중앙일보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 1년..."시가 나서라"
2022.02.22	매일신문	승객 줄어든 대구 시내버스...준공영제 여전히 '밀 빠진 독'
2022.02.23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대구 이슬람사원 재건축, "갈등이 있어도 우리 무슬림은 이웃을 믿는다"
2022.03.02	뉴스민	정치개혁 공언한 민주당... "대선용 쇼 아니라면 2인 선거구 폐지부터"
2022.03.03	뉴스민	제2대구의료원 신속 추진 촉구 연일 이어져
2022.03.03	한겨레	'제2대구의료원 필요' 타당성 보고서 나왔는데도 다시 공론화?

시민의 힘으로 대구를 바꿉시다!

2022.03.03	오마이뉴스	대구시민단체, 제2대구의료원 설립 범시민추진위 구성 촉구
2022.03.03	경북일보	시민단체 "제2 대구의료원 즉각 추진하라"
2022.03.07	노컷뉴스	대구 시민사회단체-종교계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반대...평화 해결 촉구"
2022.03.07	평화뉴스	"침략전쟁은 반인륜적 범죄...러시아, 침공 멈추고 평화협상 나서야"
2022.03.10	노컷뉴스	대구참여연대, 윤석열에게 '통합' 당부..."대장동 등 비리 의혹 털고 가야"
2022.03.10	평화뉴스	"정권교체가 개혁후퇴 되면 안 돼...정책공약, 제대로 다듬어야"
2022.03.16	대구MBC	"제2 대구의료원 환영...범시민 추진기구 조성해야"
2022.03.16	KBS	제2 대구의료원 청사진 발표..."2027년 완공 목표"
2022.03.17	오마이뉴스	대구시, 제2대구의료원 2027년 완공 목표 추진
2022.03.21	평화뉴스	제2대구의료원...코로나에 더 절실한 '지역 공공의료' 강화할까
2022.03.28	노컷뉴스	대구 시민사회단체, 제2의료원 설립 지지 서명운동 전개
2022.03.28	평화뉴스	제2대구의료원' 설립, 시민 힘 모은다...시민단체, 3만명 서명운동
2022.03.28	매일신문	제2대구의료원 건립 촉구' 서명 운동...地選까지 3만명 목표
2022.03.28	뉴스1	대구 시민단체 "시장 후보, 제2대구의료원 설립 공약 채택해야"
2022.03.29	평화뉴스	대구 진보 5당 "기초의원 3인 이상 선거구 도입, 선거제도 개혁" 촉구
2022.03.29	더팩트	대선 화두 '정치개혁'...지방의회 중대선거구제 가능하나
2022.03.29	영남일보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 대구 소수정당, 집단 기자회견
2022.03.29	sk브로드밴드	[B tv 대구뉴스]지방선거 두 달 앞...기초의회 중대선거구 확대 촉구
2022.03.30	프레시안	정의당 대구시당-진보정당-시민단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2022.03.31	평화뉴스	홍준표, 대구시장 되면 의원직 사퇴?...선거법 망각한 황당한 답변
2022.03.31	오마이뉴스	홍준표 "대구시장 되면 의원직 사퇴" 논란에 "착각해서 한 말"
2022.04.01	위키트리	시민단체, 대구시장 출마 홍준표에 "무책임하다" 비판
2022.04.01	뉴스민	대구참여연대, "홍준표, 의원직 즉각 사퇴...제2대구의료원 입장 밝혀야"
2022.04.01	노컷뉴스	대구참여연대 "대구시장 출마 선언한 홍준표, 제2 의료원 설립 약속해야"
2022.04.01	KBS	참여연대 "당선되면 사퇴, 무책임"...홍준표 "대선과 착각"
2022.04.03	중앙일보	사퇴했거나, 사직서 수리만 기다린다...경북도의원 무슨일
2022.04.04	대구MBC	환경단체 "취수원 다변화 반대...수질 개선해야"
2022.04.04	노컷뉴스	대구구미, 취수장 공동 이용 협정식 앞두고 지역 단체 찬반 갈려
2022.04.04	뉴스1	대구취수원 이전 공동이용협정 앞두고 찬반팽팽, 수질개선에는 한뜻
2022.04.04	뉴스민	대구 취수원 다변화두고 시민단체도 입장차
2022.04.04	뉴스1	대구 시민단체 "취수원 이전 환영...수질오염 총량제는 국정과제로"
2022.04.04	KBS	시민단체, 낙동강 수질 개선 대책 촉구
2022.04.04	연합뉴스	대구 취수원 다변화 결정에 지역사회 반응 엇갈려
2022.04.04	대구신문	"30년 물 갈등 종식 환영" vs "낙동강 포기하자 말"
2022.04.04	오마이뉴스	대구취수원 다변화 협정 체결에 시민단체 찬반 의견 엇갈려
2022.04.05	프레시안	대구 취수원 협약 체결두고 환경-시민단체 찬반양론 '씨꿀'
2022.04.10	한겨레	시청 이전-제2의료원 발원 '갈팡질팡'...대구시장 후보들 '반홍연대'
2022.04.11	한겨레	대구 시민사회 "제2대구의료원 건립, 불가역적 결정하라"
2022.04.11	경북일보	대구참여연대 "대구시의회, 제2 대구의료원 설립 결의안 채택해야"
2022.04.14	안동mbc	R]4인 선거구 사실상 무산... 정치 다양성 실종
2022.04.15	대구MBC	만평] 그 나무에 그 밥
2022.04.20	더팩트	대구시의회 '4인 중대선거구 쪼개기' 이번에는...

2022.04.26	경북일보	대구참여연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책임자 못 돼"
2022.04.26	평화뉴스	정호영, 경북대병원장 때 코로나 진료실적 최하위..."복지부장관 안돼"
2022.04.27	대구일보	대구시장 후보 가닥...각 시민단체, 예비후보에 요구사항 발표
2022.04.27	연합뉴스	대구시의회 4인 중대선거구 의결하라
2022.04.27	뉴스민	대구시의회, 17년째 변함없이 4인 선거구 쪼개
2022.04.27	오마이뉴스	대구시의회 '쪼개기 의회' 오명 못 벗었다
2022.04.27	매일신문	대구시의회, 기초의회 선거구 또 쪼갰다..."17년째 구태 반복"
2022.04.27	경북도민일보	대구 기초의원 4인 선거구 쪼개기
2022.04.27	세계일보	'쪼개기 의회' 오명 못 벗는 대구시의회
2022.04.27	영남일보	대구시의회, 또다시 기초의회 선거구 쪼개기..."17년 째 반복"
2022.04.27	평화뉴스	대구 '4인 선거구' 모두 2인 쪼개기...17년째 '국힘'에 발목 잡힌 정치개혁
2022.04.28	경북도민일보	"선거구 쪼개기, 대구시민 삶 쪼갤 것"
2022.04.28	경향신문	대구 기초의원 4인 선거구 또 '쪼개기'...군소정당 반발
2022.04.28	연합뉴스	기초의회 4인 선거구 쪼개기...국힘 대구시의원 겨냥 비판
2022.04.28	경북신문	대구 기초의원 4인 선거구 '쪼개기'...소수정당 등 반발
2022.04.28	대구MBC	무산된 중대선거구, 지방자치는 어디에?
2022.04.29	대구MBC	만평] 제 발등을 누가 찍나
2022.04.29	프레시안	대구시의회 '4인 선거구 쪼개기 "국회의원 사병 역할에 충실 , 스스로 중앙정치의 하수인 고백 "
2022.05.09	노컷뉴스	대구 환경단체 등 "낙조 독소 농산물, 학교 급식에 사용 말아야"
2022.05.09	경북일보	대구 환경·시민단체 "낙동강 물로 재배한 농작물 학교 급식에 쓰이면 안돼"
2022.05.11	중앙일보	91%가 의정활동 성적 미달인데...또 공천받은 경북도의원들
2022.05.16	TBC대구방송	TBC)참여연대, 대구시장 후보에 공약 제안
2022.05.16	영남일보	대구참여연대, 6·1 지방선거 정책공약 발표
2022.05.16	경북일보	대구참여연대 지선 4대 비전·18대 공약 제안
2022.05.16	kbs	참여연대, 6·1지방선거 대구 정책공약 제안
2022.05.18	노컷뉴스	대구참여연대, 특정 단체 위주의 노사평화의 전당 운영 비판
2022.05.18	영남일보	대구참여연대 "노사평화의 전당 상생 프로그램 예산 편성 부당"
2022.05.22	중앙일보	"공공의료·돌봄 확충"...시민단체 요구 봇물 '대구시장 선거 화두'
2022.05.23	내일신문	노사평화전당 상생프로그램 문제 있다
2022.05.25	뉴스스	후보자 4명 중 3명만 참여... 대구시장 후보자 TV토론 '시골'
2022.05.26	평화뉴스	"대구시장·교육감 유력 후보들의 '차별금지' 태도, 문제 있다"
2022.05.26	TBC대구방송	TBC)유권자 알 권리 어디에...후보 토론 태부족
2022.05.27	대구MBC	"홍준표 후보 공공병원 관련 실언...사과해야"
2022.06.01	TBC대구방송	TBC)'선거공약서' 이번에도 실종
2022.06.02	노컷뉴스	대구 시민단체, 국민의힘 독점 견고해진 지방선거 결과 우려
2022.06.02	뉴스1	대구시의원 32명 중 31명 국힘 싹쓸이...집행부 감사·견제 기능할까
2022.06.02	TBC대구방송	TBC)참여연대, "보수 독점 심화..비판적 목소리 경청해야"
2022.06.03	내일신문	TK독점 보수당 누가 견제하나
2022.06.03	오마이뉴스	대구·경북의회 국힘 싹쓸이... "제 식구 감싸기 반복"
2022.06.07	노컷뉴스	대구 시민단체, 홍준표 인수위 구성 지적
2022.06.07	연합뉴스	대구 9개 단체 "홍준표 시장직 인수위, 일부 위원 사퇴하라"
2022.06.07	서울신문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 시장직 인수위원회 인사 잡음

시민의 힘으로 대구를 바꿉시다!

2022.06.07	대구MBC	대구 시민단체, 시장직 인수위 일부 위원 사퇴 촉구
2022.06.07	매일신문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 인수위 7일 공식 출범..."담대한 변화 있어야"
2022.06.07	평화뉴스	홍준표 대구시장 인수위 '자질' 논란..."전문성·도덕성 부적절" 비판
2022.06.08	YTN	[대구] 대구시민단체 "홍준표 시장직 인수위, 일부 위원 사퇴하라"
2022.06.09	기자협회보	대구시장 인수위에 현직 언론인 참여..."지역 언론 공공성 훼손"
2022.06.12	글로벌이코노믹	대구시장 인수위에 현직 언론인 참여 '논란'
2022.06.13	한겨레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 지방대학에 우선권 달라"
2022.06.13	노컷뉴스	대구참여연대, 임병헌 국힘 복당에 "선거 때 약속 정략에 불과" 비판
2022.06.13	영남일보	민주당 시민단체, 임병헌 복당 결정에 즉각 비판
2022.06.14	오마이뉴스	무소속 복당 없다더니... '곽상도 지역구' 임병헌 국힘행
2022.06.14	경북신문	국힘 "복당은 없다" 천명...대구시민단체, 임병헌 복당 강하게 비판
2022.06.16	대구mbc	감사원, 부당 업무 지시 대구시설공단에 '주의'
2022.06.16	노컷뉴스	대구참여연대 "시의회 의장 선거 방식 변경, 진일보 했으나 여전히 문제"
2022.06.17	경향신문	대구시의회, 의장단 선출 방식 31년 만에 변경...시민단체, "보완 필요"
2022.06.17	평화뉴스	대구시의회, 의장선거 31년 만에 '후보등록제' 변경...시민단체 "일부 보완"
2022.06.19	경북신문	대구참여연대 "대구시설공단 주민참여예산 부당개입...감사원 적발"
2022.06.20	한겨레	대구시설공단, 주민참여예산에 직원 동원...34억 부당편성 받아
2022.06.22	내일신문	대구시민단체 "제2 의료원 설립해야"
2022.06.22	뉴시스	대구참여연대 "대구 기초의원들 세금 낭비성 관광연수 취소해야"
2022.06.22	노컷뉴스	대구참여연대 "일부 기초의회 의원 임기말 연수 부적절"
2022.06.22	연합뉴스	대구참여연대 "임기 말 구의원 관광성 연수 취소해야"
2022.06.22	프레시안	대구 기초의원, '혈세'로 '100세 시대 건강관리' 연수 논란
2022.06.22	sk브로드밴드	[B tv 대구뉴스]임기 일주일 남았는데...제주도 연수로 유종의 미
2022.06.22	TBC대구방송	TBC참여연대 "기초의원 임기 말 관광성 연수 중단해야"
2022.06.22	평화뉴스	대구 지방의원들, 임기 열흘 안남기고 관광성 연수..."세금낭비"
2022.06.22	경북매일신문	"임기 말 구의원 관광성 연수 취소해야"
2022.06.22	경북일보	대구참여연대 "기초의원 관광성 연수 취소해야"
2022.06.22	대구신문	"대구 기초의회 임기 말 연수는 관광성 출장"
2022.06.22	대구신문	전가·가스에...대구 상수도까지 공공요금 출인상
2022.06.23	KBS	"대구 서구중구의회 관광성 연수 취소해야"
2022.06.23	뉴스1	대구참여연대 "'경찰국' 부활은 정부의 경찰 장악 시도" 비판
2022.06.23	오마이뉴스	지역 운동단체들 "행안부의 경찰 통제 중단하라" 촉구
2022.06.23	오마이뉴스	"여럿이면 졸업여행, 혼자 가면 위로여행" 대구 지방의원들 '물의'
2022.06.23	매일신문	임기 끝난 구의원들, 세금으로 '국내연수'?...대구참여연대 "당장 취소하라"
2022.06.23	mbc	시민·사회단체 "행안부의 경찰 통제 시도, 중단해야"
2022.06.23	대구MBC	대구참여연대 "행안부의 경찰 통제 중단하라"
2022.06.23	KBS	임기 종료 코앞..."지방의원님은 국내외 연수 중"
2022.06.23	오마이뉴스	"권위주의 시대 경찰 부활 안 돼" 줄 잇는 규탄성명
2022.06.23	TBC대구방송	TBC참여자치운동연대 "경찰국 신설 시대착오"
2022.06.23	대구MBC	단독 공무원의 쌈짓돈? 주민참여예산
2022.06.24	대구MBC	만평] 변질한 주민참여예산제
2022.06.24	시사저널	[대구24시] 시민단체 "洪 당선인의 개발·성장 편향 정책을 우려한다"

2022.06.24	대구MBC	[뉴스+] 주민참여예산은 공무원 참여 예산?
2022.06.24	연합뉴스	대구참여연대 "홍준표 시민복지 정책 등 폐기 구상에 우려"
2022.06.24	대구MBC	"홍준표 당선인, 시민에게 좋은 정책 버리지 말아야"
2022.06.24	브레이크뉴스	대구참여연대, "홍 당선자의 개발·성장주의 편향.. 시민복지 등 정책 폐기 우려"
2022.06.24	KBS	"홍 당선인, 복지·주민참여 사업 지속해야"
2022.06.24	평화뉴스	대구 서구의회, '관광성·세금낭비' 비판에 제주도 연수 취소
2022.06.24	KBS	"홍 당선인, 주민복지·참여 사업 지속해야"
2022.06.27	대구MBC	"홍준표 당선인 정책에 '자본' 아니라 '시민' 자리 잡아야"
2022.06.27	연합뉴스	대구참여연대 "제2의료원 설립은 시민 요구...홍 직시해야"
2022.06.27	KBS	제2 대구의료원 놓고 홍준표-시민단체 논쟁
2022.06.27	대구MBC	민선 8기 정책 분야는? "복지·환경 등 정책 후퇴 안 돼"
2022.06.28	위키트리	시민단체, 홍준표 대구시장당선자에 제2대구의료원 건립 거둬 촉구
2022.06.28	시사저널	홍준표 당선인, '제2 대구의료원 건립' 두고 시민단체와 신경전
2022.06.29	노컷뉴스	대구참여연대 "홍준표 시정철학·정책과제 수정해야"
2022.06.29	대구MBC	"대구시 기관 통합, 민주적 과정 필요" 주장
2022.06.30	서울신문	홍준표의 대구, 제2의료원 건립 무산되나
2022.07.05	평화뉴스	대구시민 1만6,984명..."홍준표 시장, 제2대구의료원 설립하라" 서명
2022.07.06	평화뉴스	"집행부 거수기 우려" 대구...시민단체, 4년 내내 "의정·예산 감시"
2022.07.07	뉴시스	시민단체, 대구시의회 혁신 7대 정책 제안... "의회 혁신해야"
2022.07.07	평화뉴스	"대구시의회 혁신"...시민단체, '의정모니터단' 등 7대 정책 제안
2022.07.07	연합뉴스	시민단체, 대구시의회에 7대 정책 제안...혁신 요구
2022.07.13	연합뉴스	대구참여연대 "시의회, 합의제 감사위 조례 상정 환영"
2022.07.13	뉴시스	시민단체 "대구시의회, 합의제 감사위원회 조례 제정 환영"
2022.07.14	TBC대구방송	TBC대구참여연대 "합의제 감사위 조례 제정 환영"
2022.07.18	BBS NEWS	대구참여연대 "대구시의회, 공공기관 개혁 특위 구성해야"
2022.07.18	경북신문	대구참여연대 "대구시의회, 조례개정 중단하고 '공공기관 개혁 특위' 구성하라"
2022.07.18	뉴시스	시민단체 "대구시의회, 공공기관 개혁 특별위원회 구성해야"
2022.07.18	뉴스1	대구참여연대 "공공기관 통폐합 중단하고 개혁특위 구성해야"
2022.07.18	대구MBC	"대구시의회, 졸속 입법 중단하라"
2022.07.18	경북일보	대구참여연대 "시의회, 공공기관 개혁 특위 구성해야"
2022.07.19	영남일보	대구참여연대 "대구시 공공기관 통폐합 문제점 드러나...조례개정 중단해야"
2022.07.19	노컷뉴스	대구참여연대 "테크노파크·디자인진흥원 통합 문제...중단해야"
2022.07.19	매일일보	홍준표식 공공기관 통폐합에 반대 목소리 이어져
2022.07.19	매일신문	디자인진흥원 통폐합 조례안 심사 앞두고 여론전 가열
2022.07.19	TBC대구방송	TBC논란 속 대구시 조례안 심사 시작...시민단체 '조례 개정 절차' 중단
2022.07.20	브릿지경제	대구참여연대, '대구테크노파크 운영지원 조례 개정안' 전면 중단 요구
2022.07.20	프레시안	홍준표 "참 못된 심보 연합뉴스에 구독료 납부 취소" vs. "언론 재갈 물리기"
2022.07.21	매일신문	'통합 대구TP' 10월 출범 가시화...대구시, 통폐합 추진단 꾸리기로
2022.07.21	프레시안	디자인진흥원 통폐합 반발 거세져... 예산 추가 투입 우려도
2022.07.22	뉴스민	대구시의회, 끝내 '홍준표 거수기'로...공공기관 통폐합 발의부터 의결까지
2022.07.22	대구MBC	[심층] "청부입법" "거수기" "하수인" 대구시의회 논란, 왜?
2022.07.22	오마이뉴스	결국... 대구시의회 공공기관 통폐합 등 조례안 무더기 통과

시민의 힘으로 대구를 바꿉시다!

2022.07.22	TBC대구방송	TBC)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조례안, 대구시의회 본회의 통과
2022.07.22	KBS	공공기관 통폐합 조례안 대구시의회 통과
2022.07.22	대구MBC	청부입법' 논란 얼룩진 대구시의회 폐막
2022.07.23	쿠키뉴스	시민 67% 찬성한 '제2대구의료원' 설립, 물거품되나
2022.07.24	한겨레	홍준표 '들러리' 된 대구시의회...공공기관 통폐합 속전속결
2022.07.26	뉴스1	대구참여연대 등 전국 18개 단체 경찰국 신설 철회 촉구
2022.07.26	경북일보	대구 시민·정치권 "정부, 경찰 장악 시도 중단하라"
2022.07.26	경북일보	경찰국 설치 집단 반발 움직임 '일파만파'
2022.07.28	뉴스스	윤석열 정부 경찰 장악 규탄한다'
2022.07.28	뉴스스	윤석열 정부 경찰 장악 시도 규탄 및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촉구 기자회견
2022.07.28	연합뉴스	대구 시민단체 "금호강 산책로 공사 중단해야...환경파괴"
2022.07.28	뉴스1	대구참여연대 등 17개 단체 "경찰국 주도 이상민 행안장관 탄핵해야"
2022.07.28	오마이뉴스	대구 시민단체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하라"
2022.07.28	브레이크뉴스	대구참여연대 등 17개 단체 "경찰 장악, 정치경찰 부활 시도 강력 규탄"
2022.07.29	TBC대구방송	TBC)대구 시민단체 "경찰국 신설 반대"
2022.07.29	평화뉴스	대구 시민단체 "윤석열 정부, 경찰 장악 시도...경찰국 철회" 촉구
2022.08.11	경향신문	1년하고도 5개월 지났는데...'갈등'만 남은 대구 이슬람 사원
2022.08.11	경향신문	공사중단 1년 반...혐오표현 없지만 혐오는 여전했다
2022.08.22	평화뉴스	정량평가를 넘어...대구 지방의원, 무엇을 어떻게 평가할까?
2022.08.23	뉴스1	지방의원 의정활동 어떻게 평가할까...대구서 토론회
2022.08.24	프레시안	홍준표에 반기든 대구 시민단체와 정당 "취수원 안동댐 이전 강력 반대"
2022.08.24	평화뉴스	대구 취수원 안동댐 이전' 논란...시민단체 "1조4천억 낭비, 수질부터 개선"
2022.08.26	오마이뉴스	대구서 '지방의원 평가방법 모색' 토론회 열려
2022.08.27	오마이뉴스	"영남대 사유화가 교육을 망치고 있다"
2022.08.28	뉴스민	영남대 공대위 출범...“대학 사유화 좌시 않을 것”
2022.09.01	오마이뉴스	"대구시, 50년 뒤 아닌 지금 여기 살피야... 돌봄·소통 필요"
2022.09.01	대구mbc	[심층] 취임 두 달 홍준표 시장, 변화? 불통?
2022.09.06	BBS NEWS	대구참여연대 "대구시 행정개혁 줄속 추진...시의회 점검 나서야"
2022.09.06	뉴스1	대구참여연대 "대구시 행정개혁 줄속 추진...시의회 점검 나서야"
2022.09.08	오마이뉴스	전국 18개 단체 "시민사회 활성화 규정 폐지령안 논의 중단해야"
2022.09.13	파이낸셜뉴스	대구안실련 등, 앞산 모노레일 사업 전면 백지 촉구
2022.09.13	노컷뉴스	대구 시민단체 "앞산 모노레일 건설 사업 백지화해야"
2022.09.13	뉴스스	시민단체 "대구 앞산 모노레일 사업 전면 백지화해야"
2022.09.13	안전신문	대구시민단체 3곳, 앞산 모노레일 설치 '반대'
2022.09.13	뉴스민	대구참여연대, “대구시의회 경례회 줄속 처리 안 돼”
2022.09.13	뉴스민	대구 남구, 지방소멸대응책이 앞산 모노레일?...시민단체 “부적절” 비판
2022.09.13	매일신문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앞산 모노레일 깎고?
2022.09.13	경북매일신문	"대구 앞산 모노레일 사업 백지화해야"
2022.09.13	TBC대구방송	TBC)대구 시민단체, "앞산 모노레일 사업 전면 백지화해야"
2022.09.13	KBS	시민단체 "앞산 모노레일 사업 백지화해야"
2022.09.14	경향신문	대구 남구, 앞산에 모노레일 추진...시민단체 “환경파괴 우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도 문제”
2022.09.14	프레시안	대구 '앞산 모노레일'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에 뿔난 시민단체들 "백지화해야..."

2022.09.14	경향신문	“자연생태 2등급 앞산에 모노레일 웬 말인가”...대구 남구 추진에 시민단체 반발
2022.09.15	뉴스민	대구시, 홍준표 시장 특별고문 제도 도입 추진
2022.09.15	대구mbc	만평] 대구시의회 '거수기'는 안 된다
2022.09.16	시사포커스	시민3단체, 대구 남구청의 모노레일 사업비 꼼수증액 비난
2022.09.16	평화뉴스	대구 남구, 지방소멸기금 70억 '앞산 모노레일' 건설에 사용 논란
2022.09.20	대구MBC	곽상도 전 의원 비방 혐의 시민단체 무죄 확정
2022.09.20	한겨레	대법, 총선 때 곽상도 명예훼손 혐의 시민단체 활동가에 무죄
2022.09.20	노컷뉴스	곽상도 관련 의혹 제기 후 고소 당한 지역 시민단체 무죄
2022.09.20	오마이뉴스	대법, 곽상도 의혹 제기한 시민단체에 무죄
2022.09.20	오마이뉴스	대구 이슬람사원 건축 공방, 대법은 건축주 손 들어줬다
2022.09.21	대구MBC	대구참여연대 "대구 시설공단 이사장 적합 여부 검증해야"
2022.09.21	뉴스민	대구참여연대, “문기봉 내정자, 부동산 많아 도로공사 임원 탈락” 지적
2022.09.21	KBS	“대구 공공기관장 내정자 철저한 검증 촉구”
2022.09.22	뉴스민	“세종 주택은?” 물음에 문기봉, “아들이 공무원 준비해서...”
2022.09.28	노컷뉴스	대구참여연대 "보류 안건 재심사 하겠다는 대구시의회, 거수기 자처"
2022.09.28	KBS	대구시 한시기구 조례안 상임위 통과...순탄 운영은 미지수
2022.09.29	브레이크뉴스	"대구시의회 보류안건 재논의는 홍준표 거수기 자처"
2022.09.29	뉴스민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 심사 보류 기금 폐지 모두 원안 가결
2022.09.30	뉴스1	대구시의회, 추경안 등 80건 가결...시민단체 "홍준표 거수기" 비판
2022.09.30	뉴스민	‘용두사미’로 끝난 대구시의회의 홍준표 견제
2022.09.30	더팩트	홍준표 ‘거수기’ 전략 한 ‘대구시의회’...시민들 우려
2022.09.30	한겨레	대구시의회, 홍준표 견제 시능만...심사 유보 안건 대부분 통과
2022.09.30	영남일보	[시민사회는 지금] 대구 참여연대 "들러리 대구시의회 규탄"
2022.09.30	경북일보	대구참여연대 "거수기 자처하는 대구시의회 개탄" 성명
2022.09.30	매일신문	"대구시 신청사 부지 매각 철회하라" 달서구민 700명 대구시청 앞 시위
2022.09.30	대구MBC	[심층] '거수기' 벗어나나 했더니...결국 안건 무더기 통과
2022.09.30	뉴스민	헌법과 지방자치권' 북콘서트, "'지방자치' 준비가 되어 있나요?"
2022.09.30	대구MBC	대구시의회, 유보된 안건 무더기 통과
2022.10.01	TBC대구방송	TBC)토) 시민단체, "거수기로 전략한 대구시의회" 비판
2022.10.04	대구신문	기대-우려 교차한 대구시의회 첫 정례회
2022.10.04	평화뉴스	대구시의회, 기금 폐지 '홍준표 조례' 모두 통과...시민단체 "거수기" 반발
2022.10.04	노컷뉴스	대구참여연대 "홍준표, 지역화폐 예산 삭감 반대 입장 밝혀야"
2022.10.04	브레이크뉴스	대구참여연대, "홍준표, 윤석열 정부에 동조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외면"
2022.10.05	경북일보	대구참여연대 "시의원 겸직 보수액 공개 촉구한다"
2022.10.06	로이슈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광역단체장 등 '민간부문 활동내역' 제출자료 공개
2022.10.07	평화뉴스	홍준표, 취임 100일 폐북정치 "혁신 성공"...야당 "자화자찬, 불통" 비판
2022.10.12	KBS	제 기능 못하는 시의회 해외연수 심사위...“제도 개선해야”
2022.10.16	한겨레	“빚더미 오를 게 뻔한데...” 아시안게임 개최 반대 목소리 확산
2022.10.16	경북일보	대구참여연대 "하계 아시안게임 대구-광주 공동유치 동의안 유보"
2022.10.17	노컷뉴스	대구-광주 시민단체 "2038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 재고해야"
2022.10.17	뉴스1	시민단체 "광주-대구 2038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반대...혈세 낭비"
2022.10.17	연합뉴스	광주-대구 하계아시안게임 공동 유치 '난관'

시민의 힘으로 대구를 바꿉시다!

2022.10.17	뉴스1	2038 광주대구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빨간불'...공론화 부족 빛더미 우려
2022.10.17	남도일보	광주대구 2038아시안게임 공동유치 '비상'
2022.10.17	KBS	브랜드 가치 vs 혈세낭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 찬반 논란
2022.10.18	KBS	"광주대구 2038아시안게임 공동유치 반대"
2022.10.18	국민일보	2038 하계아시안게임 광주대구 공동유치 무산되나
2022.10.18	대구MBC	"대구시, 빛 깊는다고 시민 예산 삭감 안 돼" 주장
2022.10.18	경북일보	대구참여연대 "주민자치·시민사회 활성화 예산 확대" 성명
2022.10.18	브레이크뉴스	대구참여연대, "민생경제·시민안전 예산 확충해야"
2022.10.19	KBS	계획없이 일단 출범?...경북도의회 특위 유명무실 논란
2022.10.21	뉴스민	예산 통해서도 드러난 대구시-한국노총 밀월
2022.10.21	연합뉴스	대구참여연대 "대구시 노동 예산 한국노총이 독식"
2022.10.21	kbs	대구시, 내년 긴축재정 예고...복지예산 등 '진통'
2022.10.23	대구MBC	"대구시 노동 예산 특정 단체 편중" 주장
2022.10.23	대경일보	"대구시 노동예산 특정단체에 편중"
2022.10.24	매일신문	"대구 대통령" vs "쿠데타 주역"...'노태우 기념관' 갑론을박
2022.10.24	경북일보	[사실] 지방의회 의정비 줄 인상...견제자 역 충실해야
2022.10.24	KBS	대구시 재정부담 이유로 지역 인재 육성 프로그램 중단 논란
2022.10.25	연합뉴스	대구참여연대 "대구교통공사 민영화구조조정 중단해야"
2022.10.25	오마이뉴스	"경영혁신 위해 용역 전환? 대구 시민 안전 팔겠다"는 것
2022.10.26	KBS	"대구 3호선 운행관리원 민간위탁 철회해야"
2022.11.03	대구mbc	대구참여연대, 집중 행정감사 20대 요구안 제출
2022.11.04	KBS	참여연대, 행정사무감사 요구안 대구시의회 제출
2022.11.04	로이슈	[공동성명]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국가책임 이태원 참사, 원인 규명하고 책임물어야'
2022.11.04	오마이뉴스	"이태원 참사의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2022.11.04	오마이뉴스	전국18개단체 "윤 대통령 직접 사과, 이상민·윤희근 파면하라"
2022.11.04	인천뉴스	전국19개 시민사회단체, 이태원참사 원인 규명과 책임 묻는 공동성명 발표
2022.11.10	노컷뉴스	대구 시민단체 "홍준표, 지하철 참사 책임 조해녕 고문 위촉 철회해야"
2022.11.17	대구mbc	대구참여연대 "급식 감사에 정치적 의도 개입"
2022.11.17	브레이크뉴스	참여연대, "대구 감사위원회 독립성 상실 홍준표 시장 정치 도구 자처"
2022.11.18	안동mbc	대구참여연대 "급식 감사에 정치적 의도개입"
2022.11.18	뉴스1	대구 시민사회·야당,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촉구 움직임 본격화
2022.11.22	위키트리	대구참여연대 "홍 시장, 어디서 뭘하나?" 맹비난
2022.11.28	BBS NEWS	의원입법 하나하나...대구 의원발의 조례 예산집행률 37.9%
2022.11.28	평화뉴스	대구 이슬람사원 앞 돼지머리...유학생들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진정
2022.11.28	뉴스민	23일 저녁 6시 34분 대구 한일극장 앞, '이태원 참사' 촛불집회 열려
2022.11.28	뉴스민	소방관 택배노동자 등 150여 명, 대구에서 이태원 참사 추모 촛불
2022.11.28	영남일보	대구참여연대 "지방의회 예산없는 조례 62%...전수조사.제도개선 시급"
2022.11.28	대구신문	대구 8개 구군의회 조례 예산집행률 37.9% 불과
2022.11.28	대구mbc	만평] 조례가 잠자는 이유
2022.11.30	대구mbc	대구 참여연대 "대구시 SNS, 홍준표 개인 정치 홍보 채널인가?"
2022.11.30	프레시안	대구시 공식 유튜브, 홍준표 도배... "개인 홍보 채널인가" 비난 확산
2022.11.30	경북일보	대구참여연대 "시 유튜브 채널 운영 개선 촉구"

2022.12.01	브레이크뉴스	"대구시 공식유튜브, 홍준표 개인 정치 홍보 채널인가?"
2022.12.05	매일일보	대구참여연대 "홍준표, 7개 광역단체장 중 가장 게으른 시장" 논평
2022.12.05	대구mbc	시민단체 "홍준표 시장 공무일정, 단체장 중 하위권"
2022.12.06	KBS	대구참여연대 "홍준표 시장, 공무 일정 부족"
2022.12.07	오마이뉴스	"특·광역시장 중 부지런함 1위 김두겸, 하위는..."
2022.12.12	매일일보	대구참여연대 "홍준표 시장, 업무추진비 적게 쓴 반면 적게 일해"
2022.12.12	BBS NEWS	'대구시·구군 의원 발의 조례 예산 집행률 37.9%에 그쳐... 근본적인 의식변화 필요'
2022.12.14	매일일보	대구참여연대 "의회와 법치 무시하는 홍준표 " 지적 성명 발표
2022.12.15	매일신문	청년버팀목대출, 심사만 2주..."계약 안해요" 집주인들 손사래
2022.12.19	노컷뉴스	대구참여연대 "이슬람사원 갈등 해결, 홍준표 시장이 적극 나서야"
2022.12.19	연합뉴스	대구참여연대 "이슬람사원 문제 해결에 대구시 적극 나서야"
2022.12.19	BBS NEWS	대구참여연대, 이슬람사원 건립 문제 대구시가 나서서 해결해야..
2022.12.19	KBS	"이슬람 사원 갈등 해결에 대구시 나서야"
2022.12.19	뉴스민	대구시 노동정책 기본틀 잡혀...노동거버넌스 강화에 310억여 원
2022.12.19	대구신문	"북구청, 이슬람 사원 문제 해결 노력 안 보여"
2022.12.19	KBS	"이슬람사원 미해결, 외국 유학생 유치는 역설"
2022.12.20	경북일보	대구참여연대 "이슬람사원 건립 갈등 해결 홍준표 시장이 나서야"
2022.12.20	브레이크뉴스	"대구시, 이슬람사원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2022.12.21	영남일보	대구 시민단체들, '대형마트 휴무일 평일 변경' 반대 지속
2022.12.21	경북일보	대구참여연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철회 촉구
2022.12.21	평화뉴스	대구시, 마트노동자 47명 고발...시민사회 "홍준표의 노동탄압" 반발
2022.12.22	KBS	시민단체 "대형마트 평일 휴무 재논의해야"
2022.12.22	프레시안	홍준표 대구시장 "이슬람 사원 건립 반대는 종교탄압"
2022.12.22	오마이뉴스	날세운 대구시민단체들 "마트노동자 감금 폭력 연행한 홍준표 규탄"
2022.12.22	영남일보	대구 시민단체 "이슬람사원 문제 해결 대구시·북구청 적극 나서야"
2022.12.23	뉴시스	대구참여연대 "이슬람사원 건립 갈등...홍준표 시장 나서야 해결"
2022.12.23	평화뉴스	대구 이슬람사원 '돼지머리' 방치...시민단체, '유엔 특별보고관' 긴급청원
2022.12.25	경북일보	대구 이슬람사원 건축 지지 단체, '긴급구제' 청원서 UN에 제출
2022.12.26	대구신문	커지는 이슬람 사원 건축 갈등..."구청이 나서라"
2022.12.27	매일신문	대구 중구의회, 중구청 간부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고소
2022.12.29	오마이뉴스	대구 이슬람사원 건축 갈등 "홍준표 시장도 종교탄압 언급... 대화 필요"
2023.01.02	오마이뉴스	"국고보조금 매개로 시민사회 위축 노려... 대통령 인식 왜곡"
2023.01.03	대구MBC	대구 대형마트 의무 휴업 변경 2월부터? "법 취지 훼손" 비판 나와
2023.01.01	대구MBC	[심층] 대구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바뀌나? 대구시, 관련법 취지 훼손 논란
2023.01.04	오마이뉴스	이태원 막말 영상 공유한 대구시의회 의장 "좋아요 누르려다 잘못해서"
2023.01.04	대구MBC	대형마트 의무 휴업 변경, 대구 구군청 입장은?
2023.01.05	평화뉴스	해돋이·폭죽...대구 지자체, 일회성 '새해맞이' 행사에 혈세 3억
2023.01.09	평화뉴스	대구시, 재정 어떻게 쓰나요?...MZ세대들의 예산 감시 공부 첫날
2023.01.10	통일뉴스	각계 종교·시민사회,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 호소
2023.01.11	매일일보	대구참여연대 "대구 공식 유튜브가 홍준표 개인 홍보로 변질"
2023.01.12	KBS	참여연대 "대구시 유튜브 홍준표 홍보 전력"
2023.01.13	글로벌이코노믹	대구참여연대, 홍카콜라 2중대 전략 대구시 공식 유튜브 망비난

시민의 힘으로 대구를 바꿉시다!

2023.01.16	매일신문	[단독] 대구 이슬람사원 갈등 2년...중앙정부 개입, 해결 방안 모색
2023.01.16	머니투데이	"이슬람사원 반대는 종교탄압"...홍준표 규탄한 시민단체 왜?
2023.01.17	오마이뉴스	"전범기업 면죄부 주는 외교부, 왜교부인가?"
2023.01.17	평화뉴스	"일본 사죄 없는 배상은 굴욕"...대구참여연대, '강제징용 해법' 반대
2023.01.21	대구MBC	"의무 휴업일 변경" 노조, 직권남용 등 대구시장 고발 방침
2023.01.25	라이프인	[사회적경제기업, 그 생생한 현장을 가다]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마을에서 이루어지는 통합 케어 ①
2023.01.27	글로벌이코노믹	시장 마음대로 '파워풀 대구' 바뀌...'홍준표 상징' 변질
2023.01.30	뉴스민	[씨부려대구] 이태원 참사 이후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
2023.01.30	대구MBC	마트노조-대구참여연대 등 홍준표 대구시장 고발
2023.01.30	오마이뉴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앞두고 고발당한 홍준표 시장
2023.01.30	연합뉴스	시민단체·노조, 마트 휴업일 변경 홍준표 시장 '직권남용' 고발
2023.01.30	영남일보	[시민사회는 지금]대구 시민단체·정의당,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관련 洪 시장 고발
2023.01.30	뉴스스	대구 시민단체 "대형마트 휴업일 변경 홍준표 시장, 고발"
2023.01.30	BBS NEWS	시민단체·노조, 마트 휴업일 변경 홍준표 시장 '직권남용' 고발
2023.01.30	쿠키뉴스	시민단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홍준표 시장 고발
2023.01.30	노컷뉴스	대형마트 노조, 의무휴업일 변경 추진한 홍준표 대구시장 등 고발
2023.01.30	뉴스1	마트 휴업 평일 전환에 시민단체·정의당 "홍준표 시장 직권남용"고발
2023.01.30	LG헬로비전	대구참여연대 등, 홍준표 대구시장 고발..."마트 의무휴업일 '강요'"
2023.01.31	프레시안	홍준표 대구시장, 대형마트 휴업일 평일 전환 관련 검찰에 고발 당해
2023.01.31	뉴스민	의무휴업 전환 논란...대구참여연대·정의당, "홍준표 강요죄로 고발"
2023.01.31	한겨레	홍준표 시장, 대형마트 평일 휴업 '강요죄' 혐의로 고발 당해
2023.01.31	더팩트	직권남용 혐의 검찰 고발 당한 홍준표 대구시장...'시장 지위 권한 남용'
2023.01.31	글로벌이코노믹	대구참여연대 정의당대구시당,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홍준표 고발
2023.01.31	브레이크뉴스	대구참여연대 등, 홍준표 대구시장 '직권남용' 고발
2023.01.31	한국농어촌방송	마트노조,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홍준표 시장 강요죄로 검찰 고발
2023.01.31	안동MBC	RJ"건강은 뒷전?"..마트 노동자, 대구시장 고발
2023.01.31	경북일보	대구 시민단체, 홍준표 시장 고발...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추진 강요
2023.01.31	평화뉴스	"휴무일 강제변경"...마트노조, 홍준표 시장·이창양 장관 등 '직권남용' 고발
2023.01.31	경북도민일보	홍준표 대구시장, 직권남용 고발 당해
2023.01.31	KBS	정의당-참여연대, 검찰에 대구시장 고발
2023.01.31	경북매일신문	시민단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홍준표 시장 고발
2023.01.31	서울신문	시민단체, 홍준표 고발..."대형마트 휴업일 변경 강요"
2023.01.31	대구mbc	"건강은 뒷전?"...마트산업노조, 대구시장 고발
2023.01.31	중앙일보	대구 대형마트, 이제 월요일에 쉰다...마트 노조는 홍준표 고발
2023.01.31	매일일보	대구참여연대·정의당 대구시당, 홍준표 시장 검찰에 고발
2023.02.02	대구mbc	참여연대, 대구 중구의원 이해방지법 충돌 공익감사 청구
2023.02.02	뉴스스	"대구 기초의원 유명회사 차리고 구청과 상습 수의계약" 의혹
2023.02.02	내일신문	대구참여연대, 구의원 감사 청구
2023.02.02	KBS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중구의원 감사 청구
2023.02.03	뉴스스	"대구 기초의원 유명회사 차리고 구청과 상습 수의계약" 의혹
2023.02.03	노동과세계	대구시의 "고사전략, 임금체불"... 패션연 노동자는 꺾이지 않는다!
2023.02.03	내일신문	대구참여연대, 구의원 감사 청구

2023.02.03	KBS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중구의원 감사 청구
2023.02.09	sk브로드밴드	[B tv 대구뉴스][심층]'감방 월급' 수성구 의회만 제한...7개 의회는 구속돼도 지급
2023.02.09	영남일보	75세 이상 대구시민, 7월부터 시내버스 무임승차...특·광역시 첫 시행
2023.02.09	오마이뉴스	대구시 어르신 무임승차, 시작도 전부터 비판 목소리
2023.02.09	KBS	시민단체 "무임승차 연령 상향, 복지 후퇴"
2023.02.09	단디뉴스	[사회적경제, 현장을 가다] 대구 안심마을에서 이루어지는 '통합 케어①
2023.02.09	브레이크뉴스	대구시, 어르신 무임교통 2028년까지 '단계적 추진' 확정
2023.02.09	여성신문	대구시 어르신 무임승차, 70세 이상 상향 반대 목소리 높아
2023.02.10	브레이크뉴스	마트노조, 대구지역 대형마트 휴업 평일 전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2023.02.11	한국일보	대형마트 일요일휴무 폐지한 대구... 고객은 "환영", 노조는 "반발"
2023.02.14	대구mbc	지방의원 구속 시 의정비 지급 중단 조례 제개정 촉구

대구참여연대 정관

[전 문]

대구 is 오랜 문화의 도시이자 민족자주와 민주화 운동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진 도시이다. 그러나 군사정권 등장 이후 대구는 지역적 배타성과 현실과 괴리된 보수주의가 지배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와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 유산을 극복하고 건강한 시민사회를 형성함을 목적으로 하여 1996년 3월 11일 새대구경북시민회의가, 1998년 4월 11일 대구참여연대가 출범하여 활동해 왔다. 그동안 성숙한 시민사회의 형성과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활동해 온 두 단체는 그 역사와 성과를 통합하여 하나가 되었다. 이제 우리는 새대구경북시민회의가 실천해 온 시민사회형성 운동과 대구참여연대가 수행하여 온 참여민주주의 운동의 역사와 성과를 이어받아 정의로운 대구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시민의 참여와 소통, 연대를 적극 실천하고자 새로운 출발을 결의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모임은 대구참여연대라고 한다.

제2조 (목적) 대구참여연대는 시민 각계각층의 자발적인 참여로 자유와 정의, 참여를 통한 주민자치, 인권과 복지가 바르게 구현되는 참여민주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대구참여연대는 위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활동과 사업을 전개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
2. 인권 옹호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사회 각 분야의 비리와 부정의 고발을 통한 사회정의의 실현
4. 정책개발 및 시민의사 형성을 위한 사업
5. 민주시민교육 사업
6.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사업
7. 기타 대구참여연대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2장 회 원

제4조 (회원가입) 대구참여연대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신청을 한 사람은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제5조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대구참여연대의 운영 및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2. 대구참여연대 내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

제6조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

1. 대구참여연대의 정관, 내규를 지킬 의무
2. 대구참여연대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3.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7조 (자격상실)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대구참여연대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에는 별도의 내규에 따라 회원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제3장 기 구

제1절 총회

제8조 (지위) 총회는 대구참여연대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9조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제10조 (소집) ①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공동대표가 소집한다.

②임시총회는 재적회원 1/10 이상의 요구나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공동대표가 소집한다.

③총회는 온라인 상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그 구체적 방식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민주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④모든 총회는 개최일로부터 1개월 이상 이전에 공고한다. 다만, 비대면 총회는 14일 이상 이전에 공고한다

제11조 (권한 및 의결) 총회는 대구참여연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들을 토의, 결정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기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결정한다.

1. 정관의 개정
2. 공동대표 및 감사의 선출
3. 운영 위원장 및 운영위원의 선출
4. 결산 및 예산과 사업계획의 승인

제12조 (권한의 위임) 총회는 그 권한에 속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 제1호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민의 힘으로 대구를 바꿉시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13조 (지위)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총회 시까지 대구참여연대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토의하고 결의하는 상설 의결기구이다.

제14조 (구성)

1.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한 운영위원과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며 약간 명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2.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3. 당연직 운영위원은 회원모임의 대표, 집행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제15조 (소집)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월1회 운영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는 운영위원 1/5 이상의 요구나 집행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6조 (의결)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17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문위원, 집행위원장 및 사무처장, 선출직 집행위원의 선출
2. 집행위원장이 제청하는 활동기구의장 임명 동의
3. 실행기구 및 정책기구, 특별기구의 신설 및 해산에 관한 사항
4. 부설기관 설립 및 해산에 관한 사항
5. 모임의 재정운영에 관한 책임
6. 중요사업에 관한 결정

제3절 집행위원회

제18조 (지위) 집행위원회는 대구 참여연대의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집행하며, 정관에 명시된 사업과 활동들을 추진하는 상설집행기구이다.

제19조 (구성)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 및 각 활동 기구의 장, 사무처장 및 약간 명의 선출직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 (소집)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1조 (기능) 집행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사업의 집행
2. 각 활동기구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사항

3. 예산 편성 및 집행
4. 사무처의 설치 운영
5. 운영위원회 출석과 보고의 의무

제4절 공동대표, 자문위원회, 후원회, 감사

제22조 (공동대표)

1. 공동대표는 대구참여연대를 대표한다.
2. 공동대표는 5인 이내로 총회에서 선출하며 1인의 상임대표를 둘 수 있다.

제23조 (자문위원회) 지역사회에서 덕망을 갖춘 약간 명으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위원 인선은 운영위원회에서 한다.

제24조 (후원회) 재정 및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5조 (감사) 사업 및 재정 업무를 감사할 4인 이내의 감사를 둔다.

제5절 (활동기구) 실행기구 및 정책기구, 특별기구, 부설기구

제26조 (정의)

1. 실행기구는 대구참여연대의 정관에 근거한 사업(이하 '목적사업'이라 약칭함)을 수행하는 사업영역별 실행단위를 의미한다.
2. 정책기구는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개발과 연구를 담당하는 단위를 의미한다.
3. 특별기구는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하는 단위이다.

제27조 (실행기구의 운영)

1. 실행기구는 센터, 운동본부, 위원회 등 명칭을 사용한다.
2. 실행기구는 기구장, 실행위원으로 구성되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28조 (정책기구의 운영)

1. 정책기구는 기구장, 정책위원으로 구성되며 정책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정책기구는 실행기구 혹은 사무처에서 요구받은 과제에 대하여 연구, 개발을 하거나 스스로 연구개발하여 실행기구 혹은 사무처에 사업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 (활동기구의 신설) 대구참여연대의 원활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와 회원의 자발적 요구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활동단위를 둘 수 있다.

제30조 (기구장의 선임) 실행기구, 정책기구, 특별기구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공동대표가 임명한다. 해임의 경우도 그러하다.

제6절 지역조직과 회원 자치 모임

시민의 힘으로 대구를 바꿉시다!

제31조 (지역조직)

1. 대구참여연대의 목적을 생활현장에서 실천하고 주민운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조직을 둔다.
2. 지역조직은 대구시 및 경상북도에 속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하여 설치하되 그 외의 경우도 가능하다.
3. 지역조직은 운영단위와 집행 및 실무단위를 둘 수 있다.
4. 지역조직의 대표는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5. 지역조직의 건설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 (자치모임)

1. 대구참여연대의 목적에 부합하는 회원들의 자치모임을 둘 수 있다.
2. 자치모임의 신설 및 폐지는 운영위원회 결의에 의한다.
3. 회원자치모임의 대표는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제33조 (부설기관) 정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별도의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7절 사무처

제34조 (구성) 대구참여연대의 실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 산하에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장이 총괄한다.

제35조 (역할) 사무처는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기되는 본회의 사업집행을 수행한다.

제4장 재정

제36조 (회계연도) 대구참여연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7조 (예산 및 결산)

1. 집행위원장과 사무처장은 매년 총회에 당해 회계연도 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총회는 예산안을 처리하여야 한다.
2. 집행위원장과 사무처장은 회계년도 경과 2개월 내에 예산회계 준칙에 따라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전년도의 결산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연간 기부금의 모금액과 활용실적은 매년 3월31일까지 대구참여연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제38조 (수입) 대구참여연대의 수입은 회원회비, 후원금, 기타수익으로 한다. 단, 회원회비 기준액은 정기총회에서 결정한다

제5장 보칙

제39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40조 (준용 규정)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과 내규에 따른다. 내규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제41조(잔여재산 귀속) 단체를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민간단체에 귀속한다.

부 칙

제1조 [효력발생] 이 정관은 2018년 2월 27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부칙

제1조 [효력발생] 이 정관은 2020년 4월 22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부칙

제1조 [효력발생] 이 정관은 2022년 7월 13일 임시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발휘한다.

- 1998년 4월 11일 제정
- 1998년 12월 19일 1차 개정
- 2000년 1월 22일 2차 개정
- 2001년 2월 2일 3차 개정
- 2002년 2월 2일 4차 개정
- 2003년 2월 7일 5차 개정
- 2004년 1월 30일 6차 개정
- 2004년 2월 27일 통합총회 개정
- 2005년 1월 27일 7차 개정
- 2006년 1월 20일 8차 개정
- 2007년 1월 26일 9차 개정
- 2007년 1월 20일 10차 개정
- 2010년 1월 29일 11차 개정
- 2011년 1월 25일 12차 개정
- 2011년 9월 26일 13차 개정
- 2012년 2월 29일 14차 개정
- 2017년 7월 28일 제15차 개정
- 2018년 2월 27일 제16차 개정
- 2020년 4월 22일 제17차 개정
- 2022년 7월 13일 제18차 개정

대구참여연대 歌

함께 꾸는 꿈

작사 대구참여연대

작곡 정현규

그대들의 꿈 펼쳐라 너와 나의 꿈 여기에

보다 더 정의롭게 보다 더 평등하게

사랑 내 사랑 친구야 걸을 한 걸음 걸어라

보다 더 평화롭게 보다 더 행복하게

하늘 바람 땅 춤춘다 나는 나답게 사람아

보다 더 자유롭게 보다 더 당당하게

그대들의 꿈 펼쳐라 너와 나의 꿈 여기에

보다 정의롭게 보다 더 행복하게

사랑 내 사랑 친구야 걸을 한 걸음 걸어라

보다 더 평화롭게 보다 더 행복하게

주 소 대구시 중구 서성로 14길 59, 2층

메 일 dgpeople@gmail.com

홈페이지 <http://civilpower.org/>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dgpspd/>

후원계좌 대구은행 036-04-000437-9 (대구참여연대 정혜숙)
